연합회-I-2023-17

YWCA 100년, 돌봄운동의 역사

-200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 일시: 2023년 10월 20일 (금) 14:00 - 16:30
- 장소: 한국YWCA연합회 A스페이스(현장) / Zoom(온라인)

한국YWCA연합회

YWCA 목 적 문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保全)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차

YWCA 100년,
돌봄운동의 역사

일정	
인사말	1
발제1. 기독운동으로서의 YWCA 돌봄운동	3
발제2. 직업훈련과 가사노동자 권리운동으로서의 YWCA 돌봄운동	20
발제3. 여성노동운동으로서의 YWCA 돌봄운동	36
발제4. 사회서비스로서의 YWCA 돌봄운동	52
YWCA 돌봄운동: 2000년대 이후 연구 참고자료 목록	70

YWCA 100년, 돌봄운동의 역사 세미나 일정

■ 일시 | 2023년 10월 20일(금) 오후2:00 - 오후4:30
■ 장소 | 한국YWCA연합회 A스페이스/온라인(Zoom)

사회 : (사)한국YWCA연합회 이은영 제2부회장

시간	순서
14:00~14:10 (10분)	**개회** 인사말 원영희((사)한국YWCA연합회 회장)
14:10~14:30 (20분)	**발제1. 기독운동으로서의 YWCA 돌봄운동** - 손승호((재)한국기독교역사문화재단 사무국장)
14:30~14:50 (20분)	**발제2. 직업훈련과 가사노동자 권리운동으로서의 YWCA 돌봄운동** - 이은영((사)한국YWCA연합회 제2부회장,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14:50~15:10 (20분)	**발제3. 여성노동운동으로서의 YWCA 돌봄운동** - 윤정향(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15:10~15:30 (20분)	**발제4. 사회서비스로서의 YWCA 돌봄운동** - 곽지영(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15:30~15:40 (10분)	휴식
15:40~16:20 (40분)	종합 토론
16:20~16:30 (10분)	폐회

인 사 말

원 영 희((사)한국YWCA연합회 회장)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입니다.
'YWCA 100년, 돌봄운동의 역사' 세미나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을 창세기로부터 "돌보라" 명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올해로 창립 101주년을 맞이한 한국YWCA는 청년, 여성, 기독, 국제, 회원운동체로서, 기독정신을 바탕으로 여성, 어린이,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YWCA 100주년 역사포럼에 이어 오늘은 YWCA 운동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돌봄운동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운동사적 관점에서 'YWCA 100년사'를 정리하기 위해 첫 번째 주제를 '돌봄운동'으로 정하고, 세미나를 여신 제1기 YWCA 100년사 편찬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00년대 이후 YWCA 돌봄운동의 의미와 과제를 찾아보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연구와 발제를 준비해주신 손승호 박사님, 곽지영 교수님, 윤정향 박사님, 이은영 부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WCA 돌봄운동은 초기 여성계몽운동으로 시작해 전후에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과 고아에 대한 돌봄으로, 1970~80년 산업화 시대에는 파출부 훈련으로 대표되는 직업훈련과 여성노동운동을 전개하며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1990~2000년대에는 YWCA가 사회서비스 차원의 돌봄을 제공하였습니다. '돌봄과 살림' 사업, 돌봄정의포럼 개최, 돌봄과살림 협동조합 출범, 가사노동자의 고용 개선을 위한 법률 제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며 현장 실천을 이끌어왔습니다.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돌봄은 더 이상 선택의 영역이 아닌 필수 영역입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돌봄 관련 수요자와 공급자의 인식이 변화되기도 하였고, 돌봄 서비스 제공자가 공공뿐 아니라 시장으로 확대되기도 하였습니다. YWCA가 주도적 역할을 해오던 돌봄운동은 현재 사회의 여러 변화 속에서 어려움과 함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있습니다.

지나간 역사는 앞으로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연대 정신으로 '돌보고 살리는' 소중한 길을 함께 열어가는 시간되시길 기원합니다.

발제 1

기독운동으로서의 YWCA 돌봄운동: 2000~2022년을 중심으로

손 승 호
((재)한국기독교역사문화재단 사무국장)

1. 들어가며: 기독운동으로서의 YWCA 돌봄운동의 정의

1) 돌봄의 성서적·신학적 의미

'돌보다'는 말은 구약에서 히브리어 "다라쉬"(דרש)에 어원을 두고 있다. 다라쉬는 '돌보다, 구하다, 샅샅이 찾다, 조사하다, 연구하다' 등의 뜻을 갖고 있다. 즉 누군가의 필요를 찾아내고 이를 해결할 방법을 조사·연구하고, 돌본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역대기와 시편에 등장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라"의 의미 단어 역시 다라쉬이다. 즉 돌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관심을 갖고 부족함이 없게 하는 은혜 베푸심을 근원적 모델로 하는 셈이다.

신약에서 "돌봄"을 의미하는 단어는 "프로노에오"(προνοεω)와 "프로이스테미"(προϊστημι)이다. "프로노에오"의 의미는 "앞장서다, 다스리다, 능가하다, 인도하다, 돕다, 보호하다"이며, "프로이스테미"는 "인도하다, 보살피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결과적으로 신약에서 "돌봄"의 의미는 하나님이 인간과 세상을 눈동자처럼 지키면서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것이다.[1)]

따라서 성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설명한다. 요한복음 5장에 등장하는 '38년된 병자'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돌봄을 극적인 장면으로 연출한다. 그날은 유대인의 명절로 모든 이들이 사랑하는 가족·친지와 만나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날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리스도는 누구도 돕지 않는 가장 소외된 이를 찾아 나섰다. 그리고 그의 병을 낫게 한다. 아무도 돕지 않는 이,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이까지 돌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돌봄이다.

---

1) 원예은, "교회 공동체적 돌봄영성에 관한 연구: 디트리히 본회퍼와 헨리 나우웬의 돌봄영성 중심으로," 계명대학교연합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7), 9.

그리고 창세기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창조했다고 이야기한다. 기독교의 창조이야기는 죄로 인해 인간에게 폭력성이 내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는 이웃과 세상을 돌보고자 하는 선한 신적 성품이 심겨져 있다고 이야기한다. 따라서 돌봄은 그 자체로 매우 종교적인 행위이며 기독교적 정신의 실천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기독교가 인도적 관심, 사회적 책임, 종교적 신앙을 한 곳에 묶어 타자 돌봄에 헌신해 온 이유가 여기에 있다.[2)]

최만자는 창세기 1장 2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는 독특한 표현을 근거로 창조 질서로서의 돌봄을 주장한 바 있다. 하나님의 영이 창조의 기적을 낳으려는 새처럼 만물을 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구약의 다양한 구절을 분석한 최만자는 "태초에 있은 돌봄은 인간존재의 양태가 돌봄을 필요로 하고 동시에 돌봄을 행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하나님의 영은 돌봄의 영이고 우주 만물은 돌봄에 의해 생명을 얻고 지속시킴이 창조질서"라는 것이다.

최만자는 이어 돌봄을 여성신학적으로 이해하려고 시도한다. 돌봄 행위자로서의 하나님이 표현되는 성서구절에서 돌봄의 하나님은 자식을 품어 양육하는 어머니 모습에 일치한다는 것이다. 분명 호세아서 11장에 등장하는 '걸음마를 가르치고, 품에 안아서 기르고,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묶어서 업고 다니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리는 하나님'은 영락없는 어머니의 모습이다. 최만자는 "하나님이 '돌보는 하나님' 이라는 성서 표현은 인간과 하나님,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모든 관계가 상호 돌봄에 근거하여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과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하나님의 본질, 속성 자체가 '돌봄'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 자체'라는 명제를 증명해 주는 기독교 신관의 특수성을 보여준다. 그 위에 그 돌봄-사랑이 '정의'에 기반하여 표출된다는 것도 특별하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요 정의의 하나님이다."[3)]

돌보는 행위는 죽었던 것을 새롭게, 죽어가는 것을 새롭게 살려내는 행위인데 연민과, 살림, 그리고 지혜가 신학적 돌봄의 원리라고 본 최만자는 따라서 돌봄에는 사회적 불의를 극복하는 해방(연민), 노동성(살림), 불의한 권

2) 유원지, "인도적 활동을 통해 신을 섬기기: 한국의 기독교 신앙기반단체의 신중심적 돌봄 윤리," 「한국문화인류학」 56-1(2023.3), 39.
3) 최만자, "돌봄의 성서적, 신학적 이해 - 돌봄의 사회로 가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인식 전환," 「제1차 YWCA 돌봄정의포럼 자료집」(2014), 6.

력에 대한 저항과 약자의 보호(지혜)가 작동하고 있다고 보았다.[4)]

2) YWCA 돌봄운동의 정의

이 글은 기독운동으로서의 YWCA 돌봄운동 관련 활동을 개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00년 이후 세부적으로 어떤 돌봄운동이 진행되었는지는 다른 연구와 발표에서 다루어질 것이며 이 글에서는 YWCA의 전체 역사에서 돌봄운동이 어떤 맥락을 가지고 형성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 그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이 글은 돌봄활동과 돌봄사업, 돌봄운동을 구분지어 이해하고자 한다. 돌봄활동은 포괄적으로 YWCA가 실천해온 여성과 이웃을 돌보는 다양한 사업을 총칭하는 것이며 돌봄사업은 1966년 파출부 직종 개발 이후 돌봄과 관련된 직종사업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돌봄운동은 아래에 제시될 정의에 따른 것으로 돌봄의 필수적 개념으로 정의가 제시된 이후의 운동을 주로 의미한다.

이 글은 돌봄운동 형성과정을 여성돌봄과 이웃돌봄으로 나누어 살필 것이다. 여성돌봄에서는 여성의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적 변화와 인식개선 등을 추구해온 YWCA의 역사를 근거로 돌봄정의운동의 자리를 확인할 것이다. 이웃돌봄에서는 농촌운동, 구호사업, 그리고 여성직종 개발사업으로서의 돌봄사업이 어떻게 정의를 추구하는 JW모델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글의 YWCA 돌봄운동의 정의는 다소 협소하다. 자연 돌봄으로서의 생태·탈핵운동이나 민족 돌봄으로서의 일제하 민족운동, 해방 이후 통일운동 등은 다루지 않을 것이다. 이는 이 글이 논의의 초점을 집중하기 위한 조작적 정의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 글에서 YWCA돌봄운동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한국YWCA가 돌봄노동을 사회화하고 보편적 돌봄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한 일련의 활동”

2. 기독운동으로서의 YWCA의 여성돌봄

1) 1990년대까지

한국 YWCA가 출범한 1920년대 전반기는 일제의 통치 방식이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바뀌고, 실력양성운동이 한국 독립운동의 주요한 흐름으로 부

4) 최만자, “돌봄의 성서적, 신학적 이해 – 돌봄의 사회로 가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인식 전환,” 4-10.

상하는 한편, 사회주의의 반기독교운동이 시작된 복잡한 시기였다. 또한 3.1 운동 직후 다양한 여성단체들이 설립되면서 여성에 의한 독립운동이 조직화되었을 뿐 아니라 여성 지위 향상과 여권 보장을 위한 활동이 활성화되었다. YWCA 역시 여성의 '전인적 발달, 생활의 원만, 인격의 개발, 천국의 건설'을 위해 조직되었다.[5)]

창립 초기부터 YWCA는 문맹퇴치를 비롯한 여성교육, 축첩·조혼·공창 폐지 등의 여성권위 회복, 위생·육아·요리 등의 여성생활 개선을 위한 활동에 나섰다. 말하자면 YWCA는 그 출발부터 여성을 돌보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는 뜻이다. YWCA가 1925년 사회문제연구부를 설치하고 '① 폐첩문제, ② 조혼문제, ③ 금무, ④ 금연과 금주, ⑤ 여자노동문제, ⑥ 공창폐지문제, ⑦ 경성에 유학중인 학생의 남녀교제 주의, ⑧ 사회 실상 일람표 작성'[6)]을 주요 임무로 설정하였다는 사실은 당대의 여성 문제인 축첩, 조혼, 매춘, 여성노동을 해결을 통해 여성을 돌보고자 했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종교적 가부장제도의 성격을 가지는 천황제 이데올로기에 굴복한 일제 말기를 제외하면 비록 그 한계를 지적할 수는 있겠지만 일제강점기 YWCA가 여성을 돌보는 유력한 사회기관으로서 시대적 사명을 다해왔다는 점은 분명하다.

해방은 민족적으로는 급격한 변화라 할 수 있지만 젠더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 물론 일부 엘리트들은 국가 재건에 참여하면서 활발한 사회운동을 펼쳤지만 계급으로서의 여성은 여전히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머물러 있었고 남성의 지배를 받는 가장 값싼 노동력이었다. 1946년 미군정에 부녀국이 설치되면서 "조선 부인의 사회, 경제, 정치 및 문화적 개선"과 "조선 부인의 복리 증진"을 그 직능과 임무로 규정하였지만 실제 활동은 계몽 활동에 머물렀던 것은 당시 여성이 처한 열악한 상황을 반증하는 일이었다.[7)]

해방 정국의 혼란한 상황과 이어진 전쟁기에 YWCA는 여성들을 돌보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1951년 전쟁으로 부산으로 옮겨간 한국YWCA연합회는 해외의 지원을 받아 여성과 고아들을 위한 복지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유엔 한국재건위원단(UNKRA)의 지원을 받아 동래농예원을 복구하여 전쟁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게 된 여성들의 직업교육을 실시했다.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순천, 조치원 등의 YWCA가 실시한 여성 직업교육은 여성들 그리고 그 가족들의 생계유지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날 무렵 YWCA는 다시 여성의 지위와 권익을 위한 활동에 나섰다. 1953년 3월 여성문제연구회, 대한부인회, 대한여자청년단, 대한여

5) 한국YWCA연합회, 『YWCA 목적문 이해』(대한기독교서회 2016), 12.
6)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 연합회회록" (1925년 8월)
7) 유성희, 『한국YWCA 100년의 여정』(대한기독교서회, 2021), 127.

학사협회, 대한천주교부인회, 대한불교부인회, 대한여자기독교절제회와 함께 8개 단체 연합으로 "여성단체의 민법(특히 친족상속법)제정에 관한 건의서"를 제출한 것이 그 출발점이라 할 것이다.[8] 이어 1954년 프로그램연구부 안에 사회문제부를 다시 설치하고 여성의 차별대우와 지위에 관한 연구에 착수했다. 물론 국가 재건과 전쟁의 시기를 거치며 YWCA 자체의 조직은 약화되어 있었고 또 긴급한 구호를 요청하는 여성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실제적인 활동은 구호사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비록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YWCA가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설 수는 없었다 하더라도 1954년에 다시 여성의 권리 보장을 우선과제로 설정한 것은 YWCA는 언제나 본질적으로 여성돌봄기관이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여성의 법적 지위를 향상시키겠다는 YWCA의 의지는 가족법 개정운동으로 이어졌다. 이미 대한민국은 헌법에 남녀평등을 명시하는 민주국가였기에 YWCA의 가족법 개정운동은 그 도덕적·법적 정당성에 흠잡을 것이 없었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은 공고한 가부장제 사회였으며 여성들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 정부의 민법기초위원회가 작성한 초안은 여성단체들의 요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고 YWCA는 여성단체들의 중심에 서서 다른 단체들과 함께 100여 차례의 강연회와 좌담회를 열었다. 새로운 민법이 1958년 2월 공포되었지만 호주제와 친족상속이 유지되고 동성동본불혼을 위시한 여러 관습법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아쉬운 대로 가족법 개정운동의 첫 성과이자 긴 싸움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이태영은 새로운 친족법이 개정되었다는 것을 '획기적인 입법이자 개인적 평등과 남녀동등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적 가족제도를 향한 일보 전진'이라 평하였다.[9] 긴 싸움의 시작이었다.

1958년 제20회 전국대회에서 YWCA는 혼인신고 강조와 축첩 공무원 정비를 중점사업으로 채택했다. 한국 여성운동에 대한 각종 전시회가 있을 때마다 등장하는 YWCA 혼인신고운동 포스터가 이때의 산물이다. 1960년 7월 19일에 열린 축첩자 관련 강연회와 데모는 여성운동이 선거와 연결된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이 시기 여성의 법적 문화적 지위의 상승과 남녀평등의 중요성 인식에 YWCA가 미친 영향은 반드시 기억되어야 한다.

1960년대 농업에서 공업으로 산업의 중심이 이동하면서 빈부격차와 노동문제가 심화되었다. 도시의 인구가 증가하였지만 이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안전한 주거공간과 일자리는 부족하였다. 도시빈민 여성 문제와 함께 식모, 여차장, 여직공을 의미하는 삼순이 문제, 윤락여성의 재활문제가 불거졌다. 이

8) 대한YWCA연합회, 「한국YWCA 가족법 개정운동 1953-1989년」(1989). 1.
9) 유성희, 『한국YWCA 100년의 여정』, 137-138.

런 상황에서 YWCA는 1965년부터 여차장의 노동문제를 공론화하여 근로조건과 숙소 개선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1966년부터 가정에 종속된 식모를 출퇴근하는 노동자 개념으로 전환한 시간제 가정부 직종을 개발하였다. 이른바 파출부, YWCA 돌봄사업의 시작이었다.

새로운 직종의 개발은 1970년대로 이어지면서 도배, 타일, 페인트 등 기존에 남성만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직종에 여성이 진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YWCA는 계속해서 여성직업을 개발하여 '감귤전정기술, 표구, 제도, 목공예, 간판, 피부관리사, 호텔미화부, 탁아모, 환자돕는이, 비서, 전문음식점 경영훈련, 세탁사, 보육교사, 속기사, 커튼봉제사, 메이크업, 출장조리사' 등으로 훈련을 확대하였다. YWCA의 직업훈련은 직업에 대한 성차별을 완화하고 여성노동의 저소득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였다.[10)]

당연하지만 이 시기 새로운 직종의 개발만 진행된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1975년에는 여성 은행원에 대한 차별대우의 시정을 요구하는 운동인 "여행원 결혼각서 폐지운동"을 벌였다. 이 운동은 서울YWCA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은행원 입사 시 여성은 '결혼사직 각서'나 '30세 사직 각서'를 강요당하고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운동이었다. 같은 해 5월 '직업여성의 차별정년제 폐지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7월에는 공개토론회 '차별정년제는 부당하다'를 실시하였다. 연합회는 이듬해 10월 국회에 '여행원을 위한 처우개선 6개항'을 건의하고 급여와 승진기회, 취업 응시 및 인사 등 여성 은행원에 대한 다양한 차별대우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였다.[11)]

1984년에 시작된 무료직업안내사업은 무허가 직업안내소의 피해를 입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YWCA의 무료직업안내소는 민간단체로서는 처음 정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건전한 일자리의 소개와 인신매매의 예방에 효과를 발휘하였다. 또한 비슷한 시기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탁아사업을 본격화하였다. 1993년에 노동부의 지원으로 출범한 '일하는 여성의 집' 역시 여성들의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21세기 들어 '여성인력개발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 2000년대 이후, "돌봄으로 정의를"

2000년대 이후의 여성돌봄의 화두는 '정의'였다. 돌봄의 사회적 요구는 날로 증대하였고 그에 따라 정부의 개입도 확대되었다. YWCA의 구조적인 입장에서 그 결과는 위탁 시설의 급증으로 나타났다. 시설의 급증은 곧 조직의

10) 구정혜, "비영리단체 돌봄사업의 가능성과 한계 - YWCA 돌봄사업구조 변화 과정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7), 58-59.

11) 사회문제위원회, "여행원 시정돼야할 처우 개선 - 연합회에서 국회, 정부에 건의," 「한국YWCA」 제24권 제10호(1976.11), 9-11.

확대와 직원 수의 증가를 필요로 했다. YWCA 내에서 사회서비스의 영역이 확장되면서 YWCA 내부에는 정체성의 문제가 불거졌다. 이미 이런 정체성 논란은 꾸준히 있었으며 1987년 2월에는 이런 논란의 결과로 정책문 "한국 YWCA의 정체성"이 발표된 바 있었다. 이 정책문은 YWCA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천명했다.

> "한국YWCA는 젊은 여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게 하며 온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됨을 인정하게 하고 구세주이신 예수의 교훈을 자기 생활에 실천하게 함으로써 평화와 정의의 사회를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YWCA 목적에 나타난 대로 YWCA는 기독교운동이며, ... 하나님 안에서 온 인류의 형제애를 추구하며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그의 사랑의 교훈을 실천하는 '기독교운동체'로서의 YWCA 정체성은 소외된 이웃과 비인간화해 가는 사회현상 등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과감하게 사회변화 및 사회개혁 차원으로 심화시키는 데 있다.[12]

21세기 들어 발생한 정체성 논란도 한국YWCA가 가야할 길은 "정의, 평화, 생명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임을 다시 확인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13] 평화와 정의, 생명의 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YWCA가 2000년대 이후 돌봄을 정의와 연결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2011년 YWCA는 "정의운동의 해"를 선언하고 정의운동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정의포럼을 1년간 월 1회 개최하였다. 그리고 YWCA의 정의운동의 방향을 '돌봄 정의'로 정리하면서, 기독교 페미니즘에 입각한 정의운동으로서 '돌봄정의운동'을 선포했다. 여기에서 말하는 "돌봄"은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었다. 유성희는 오랫동안 YWCA 운동의 슬로건이었던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이 돌봄 정의의 모토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14] 정의로운 돌봄은 YWCA다운 정의운동을 논의한 결과였다.

구정혜는 2006년도부터 2017년까지 "한국YWCA '돌봄으로 정의' 운동 중점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한 바 있다.

---

12) "YWCA 정체성," 「1987년도 YWCA 전국회원대회」 자료집(1987), 47. 이 자료는 당일 논의되어 약간의 자구 수정을 거쳐 최종 발표된 것으로 보인다. 최종 발표된 자료의 원문은 유성희, 『한국YWCA 100년의 여정』, 293-294 참조.

13) 유성희, 『한국YWCA 100년의 여정』, 382.

14) 유성희, 『한국YWCA 100년의 여정』, 385.

연도	정책과제
2006-2009	**1. 여성의 인권과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 2. 함께 키우고 자라는 아이들 3. 땅과 생명을 살리는 먹을거리 4. 아시아여성연대를 통한 생명공동체
2010-2011	**1. 여성의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 1) 노동(일) - 여성의 돌봄노동 가치 향상 - 일하는 여성의 복지 향상 - 여성의 노동권 강화 2) 안전(생략) 3) 다문화(생략) 4) 세계빈곤퇴치(생략)
2012-2013	**돌봄으로 정의** 1. 법제화를 통한 돌봄노동의 사회화 2. 공동체의식을 기반으로 한 사업 또는 운영조직 마련 3. 돌봄서비스의 표준화와 전문화, 보상체계 구축을 통한 서비스의 관리 4. 지역사회 구성원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종합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2014-2015	**돌봄노동권 확보 - 돌봄노동 종사자 법적보호 위한 법 개정** 1. 돌봄노동 인식개선 운동 - 돌봄정의포럼 2. 돌봄서비스 전달체계 확보를 위한 가사노동자 관련법 개정운동 - 근로기준법 및 직업안정법 개정 3. 협동조합 시범 YWCA지원 - 협동조합 정책리더 양성 - 예비조합원 교육
2016-2017	**돌봄정의운동 - 돌봄과 가사 노동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 이루기** 1. 가사종사자 관련 제도 개선 촉구 - 가사종사자 관련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대 - 가사종사자 관련 정책 제안 2. 돌봄 서비스 제공체계 정비 - YWCA돌봄교육 체계 정비 - 미래지향적이고 성인지적인 YWCA 돌봄서비스 제공 체계 모색 3. 협동조합 시범 회원Y 지원 - 돌봄 임원 교육 4. 여성직업훈련 체계 정비와 정책 제안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른 여성 직종 개발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서의 체계 정비 -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체계 마련 촉구

<표 1> "한국YWCA '돌봄으로 정의' 운동 중점 정책과제"[15]

이런 배경 속에서 2014년 총 5회의 '돌봄정의포럼'이 개최되었다. 원래 6회로 기획되었던 이 포럼은 운영 과정에서 5회로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역시 구정혜가 정리한 포럼의 내용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제5차
주제	가치의 근원을 찾아서	보편적 복지로서의 돌봄	YWCA와 돌봄노동 : 가사노동자 사례를 중심으로	돌봄노동과 인권: 가사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중심으로	YWCA가 바라는 돌봄사회는 무엇인가
목적	- 돌봄의 성서적, 철학적, 역사적 의미 공유 - 각자가 직면한 돌봄의 문제를 성찰할 수 있도록 함	- 돌봄은 조건과 제약 없이 누구나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보편적 복지로 나가야 함을 강조 - 실례를 통한 보편적 복지의 개념 이해	- 돌봄을 노동과 노동자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현장의 실사례를 통한 돌봄노동 이해 - '가사노동은 사회화되어야 할 돌봄노동입니다' 메시지 전달	- 가사노동이 돌봄노동이라는 인식하에 가사노동자의 인권 보호방안 논의 - 돌봄사회를 위한 지역사회 역할 논의	- 여성의 삶과 사회구조 이해를 통하여 돌봄사회를 이루기 위한 방안 공유 -YWCA 돌봄운동의 방향과 지향점 공유
내용	발제①: 돌봄의 성서적, 신학적 이해 발제②: 돌봄의 역사적, 사회적 의미와 가치	주제발제: 보편적 복지로서의 돌봄 발제①: 서울시 복지정책과 복지기준 발제②: 함께 만들어가는 돌봄복지	사례발제: 돌봄노동자로서 내가 보는 '나', 내가 보는 '사용자' 주제발제: YWCA회원들의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	발제①: 가사노동과 인권 발제②: YWCA 회원들의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과 인권	발제①: 여성의 삶과 돌봄 워크숍: YWCA가 바라는 돌봄사회는 무엇인가

<표 2> "2014 YWCA 돌봄정의포럼 내용"[16]

15) 구정혜, "비영리단체 돌봄사업의 가능성과 한계 - YWCA 돌봄사업구조 변화 과정을 중심으로," 66-67.
16) 구정혜, "비영리단체 돌봄사업의 가능성과 한계 - YWCA 돌봄사업구조 변화 과정을 중심으로," 73-74.

전체적인 돌봄정의운동의 흐름과 '돌봄정의포럼'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두드러지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돌봄정의운동은 여성인권 보장이라는 큰 틀에서 정당성이 확보되고 있다. 그리고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이끌어내는 한편 돌봄노동을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보고 사회화를 시도하면서 그 방편으로 법제화를 추구하였다. 보편적 복지와 인권의 문제는 반드시 인식의 전환과 법제화를 수반해야 지속성이 보장되기에 YWCA의 운동방식은 매우 적절해 보인다.

또 한가지 공통점은 돌봄노동을 특히 가사노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는 것이다. 즉, 돌봄정의운동은 그동안 여성들에게 강요되어 온 가사노동을 중심으로 돌봄노동을 보편적 복지로서 사회화하여 여성의 인권을 신장함과 동시에 가사노동 분야에서 활동하는 돌보미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려는 시도였다. 블라디미르 레닌은 일찍이 실제적인 여성해방은 단순히 여성과 남성의 법적 평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사노동을 사회화하는 전반적인 변화를 포함할 때 가능한 것이라 주장한 바 있다. 기독교 운동인 YWCA의 활동이 때로는 더디게 보일지 몰라도 천천히 여성을 돌보는 일의 진보를 가져오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3. 기독운동으로서의 YWCA의 이웃돌봄

1) 1990년대까지

YWCA가 여성에 대한 관심과 민족에 대한 관심을 함께 가지고 출발했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다. 따라서 초기 조선YWCA의 활동에는 조선인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금주금연, 공창폐지, 농촌계몽, 사회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들 중 이웃돌봄의 성격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농촌운동이었다. 1910년대의 토지조사사업, 1920년대의 산미증식계획으로 인해 이중삼중의 수탈을 당하고 있던 조선의 농촌을 대상으로 덴마크의 농업을 모델로 삼아 진행된 YWCA의 농촌운동은 피폐해진 농촌과 농민을 향한 적극적인 돌봄의 실천이었다. YWCA 농촌운동의 골격은 다음과 같았다.

> "(1) 농촌보건위생에 관한 일 : 요리법 계선, 부엌 개선, 하수도와 배수시설 개선, 도로 개선, 우물 파기, 의료사업, 기생충 박멸
> (2) 농민협동 : 신용조합, 저축조합, 협동구매, 소비협동
> (3) 농민교육 : 더 좋은 어린이 양육에 관한 교육, 한글교육, 각종

관청 관계 허가 신청에 따르는 교육, 종자개량에 관한 교육, 비료 개량방법, 농기구 개량방법

(4) 농촌부업 장려 : 양계, 가축사육, 양잠, 양봉, 작은 작물 재배, 버섯재배, 화초채소 재배, 새끼줄 꼬기, 신발 짜기, 바구니 짜기, 자루 만들기, 목공, 농기구 만들기"[17]

비록 동시대에 진행된 사회주의 계열의 농민운동과 비교했을 때, 전체 농민의 약 80%를 차지하는 소작농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개량주의적 접근방식을 취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YWCA가 펼친 농민교육과 농촌부업 장려는 농촌의 생활개선과 계몽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했다.

해방 이후 재건된 YWCA는 해방과 전쟁으로 인해 위태로운 사회 속에서 정부의 개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구호에 앞장섰다. 이는 사랑으로 대표되는 기독교 정신의 시대적 구현이었다. 이 시기 YWCA는 국제적인 단체의 위상에 걸맞게 국제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민간외교의 한 부분을 담당하였다.

1952년 세계YWCA 회보에 게재된 박에스더의 글에 따르면, 1950년대 YWCA의 활동은 구호사업과 고아 지원사업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YWCA는 구호사업을 조직해 각 지역 YWCA의 센터를 피난민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하고 피난민들의 필요로 채워주었다. 그 사례를 몇 가지 거론하자면 대전YWCA는 기차역에서 물과 음식을 공급하면서 YWCA건물에서 피난민들이 숙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산과 대구YWCA는 국군병원 환자의 식사, 세탁, 간호를 담당하였다.[18] 광주YWCA는 성빈여사, 호남여숙, 소녀의 집 등을 기숙학교로 설립하여 불우아동의 복지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부산, 거제, 목포YWCA는 고아원을 운영하였다. 박에스더는 YWCA가 절망하고 실망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돕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휴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서 한국인들이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다. 비록 전쟁으로 인해 가족을 잃고 집은 불탔지만, 우리는 그저 주저앉아 울고만 있을 수는 없다. 우리는 반드시 정의가 찾아올 것이라는 희망과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향후 과제를 위해 국내외 지도자를 계속 양성하고 있다. 이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한국에서 YWCA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19]

17) 천화숙, 『한국 여성기독교사회운동사』(혜안, 2000), 203.
18) Park Esther, *"The YWCA in KOREA,"* World's YWCA Monthly 30-4 (1952), 5-8.
19) Park Esther, *"The YWCA in KOREA,"* 5-8. 김은하, "8.15 해방 이후 한국YWCA 기독여성운동," 「장신논단」 54-5(2022), 89에서 재인용

김은하는 이런 YWCA의 구호활동의 결과로 '여성들이 수혜자에서 시대의 주체로 변화하였고, 교회 중심에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집으로 고백하는 기독교 정신이 강화되었다'고 보았다.[20]

1966년 서울YWCA가 새로운 여성의 직종으로 개발한 '파출부'는 YWCA의 돌봄사업의 출발점이었다. 서울YWCA는 시간제 가정부 훈련을 실시하여 파출부 알선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이후 파출부 알선사업은 YWCA의 중요사업으로 회원 증가에도 큰 힘을 발휘하였다. 1975년에는 부산YWCA가 간병 분야를 분리하여 '환자돕는이'를 교육하여 파견하기 시작했다. 구정혜는 "1970년대 파출부 사업은 26개의 회원YWCA 중 23개소에서 실시하였으며 수요에 따라 외국인 가정에 파견하는 파출부, 환자돕는 이, 요리사 훈련을 개발해 필요한 회원가정에 훈련생을 보냈으며, 여성의 사회적 요구와 여성지위 향상에 이바지한 대표적 성공사례가 되어 노동부로부터 무료직업안내소 인가를 받게 되는 성과를 이끌었다"고 높이 평가하였다.[21]

이러한 돌봄사업은 물론 여성직종 개발 사업이다. 파출부는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식모를 직업화한 것이었다. 1960년대 식모는 부모 또는 보호자가 '가족의 입 하나를 줄이기 위해' 도시로 보낸 여성이었다. 식모에 대한 계약은 보통 보호자와 사용자가 하였고, 초기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이후 숙식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1960년대 서울역에 도착한 15세에서 19세의 여성의 모습은 "한결같이 조그마한 봇짐을 들었고, 반드시 서울시 oo구 oo동 oo번지'라고 적힌 쪽지를 지녔다"로 묘사되었다. 그리고 이런 식모의 월급은 "한 달 담배값"과 같았다.[22] 따라서 YWCA는 이런 열악한 상황에 처한 식모를 정당한 임금과 대우를 받는 노동자인 파출부로 전환하여 여성의 권리개선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오늘날 이런 노동을 돌봄노동이라 부르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파출부, 간병인 등은 타인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업무 특성을 지닌다. 돌봄노동은 다른 직종과 달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를 돕고 돌봄 제공자와 사용자 사이에 관계망을 형성한다. YWCA는 돌봄사업을 통해 제공자인 여성을 보호하고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이웃인 사용자에게 돌봄을 제공해 왔다. 이는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힘의 불균형을 완화하여 서로에게 이롭고 공평한 관계로 전환하는 일이었다.

---

20) 김은하, "8.15 해방 이후 한국YWCA 기독여성운동," 84-87.
21) 구정혜, "비영리단체 돌봄사업의 가능성과 한계 - YWCA 돌봄사업구조 변화 과정을 중심으로," 60-61.
22) "[이모를 찾아서] 한달 담뱃값에 식모를 두다," 「중앙일보」 2018년 2월 28일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2401925#home(2023년 10월 17일 확인)

2) 2000년대 이후: JW모델의 창안

이후 돌봄사업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2002년 10월 한국YWCA연합회는 '복지사업위원회'를 조직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어린이집 및 복지관, 은학의 집 등의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를 다루게 하였다. 이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사회복지서비스 분야가 국가의 정책과제로 활발하게 확장되는 사회에 적응·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 2007년 전자바우처 형식의 사회서비스 사업이 본격화되는 등 사회의 빠른 변화에 YWCA가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면 다양한 논의와 실천이 필요했던 것이다.

정부는 2008년부터 사회서비스선도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단체의 돌봄사업도 공공성과 기업성을 가지는 새로운 형태의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했다. 그리고 YWCA는 이런 취지에 부합하는 역사성과 조직을 가지고 있었다. YWCA는 '돌봄과 살림' 사업단을 조직하여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돌봄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재확인하여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사회서비스선도사업을 경험한 YWCA에는 문제의식이 생겨났다. 돌봄사업의 시장화가 과연 YWCA의 정신에 부합하는가 하는 문제였다. YWCA의 돌봄사업은 단지 일자리 창출만이 아닌 그 이상의 목적을 가진 사업이어야 한다는 인식이었다. 비영리단체이자 기독운동기관으로서 YWCA는 이런 고민 끝에 "모두를 위한 정의와 사회복지서비스 모델(JW모델)"을 창안하였다.

JW모델은 YWCA형 좋은 돌봄서비스 모델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돌봄서비스는 관계망을 형성하기 때문에 JW모델은 기본적으로 관계망 형성 모델이었다. JW모델은 다음과 같은 필수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 "첫째, 공공성의 원칙이며 공공성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정부와 비영리기관의 역할을 강조한다.
>
> 둘째, 노동권 확립의 원칙이다. 돌봄 노동의 노동권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 여야 하며 이것은 좋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돌봄 노동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에서 기존 노동권의 준수를 넘어서서 새로운 노동권의 확립을 모색해야 한다.
>
> 셋째, 보편적 복지의 원칙이다. 보편적 복지는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배제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지역 사회 성원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종합복지서비스를 근간으로 한다.

넷째, 공식성의 원칙이다.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돌봄서비스일수록 자의성이 적고 객관적이며 서비스의 질에서 표준화가 이루어지는 등 공식적 특성을 띨 수 있어야 한다."[23]

이상의 필수조건에서 알 수 있듯이 JW모델은 돌봄정의운동의 정신에 부합하는 모델로 개발된 것이었다. 아래의 그림은 YW모델의 그러한 위치를 잘 드러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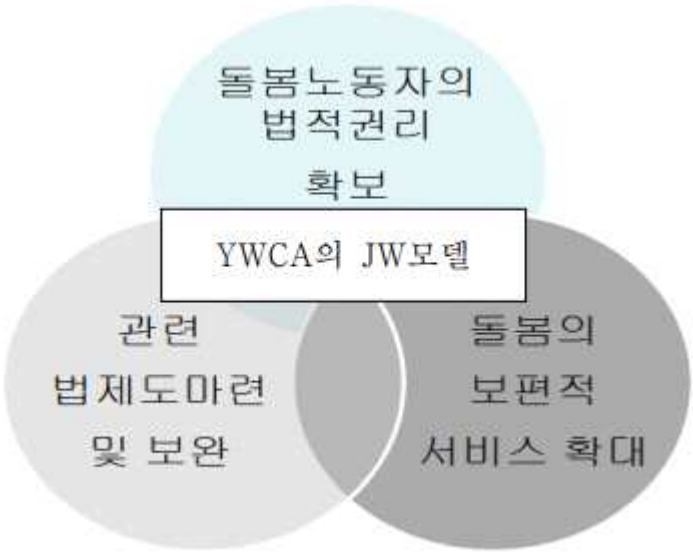


그림 1 한국YWCA돌봄정의운동 목표 및 운동방향[24]

역사적 맥락에서 그동안 억지로라도 구분지어 살펴볼 수 있었던 여성돌봄과 이웃돌봄은 21세기에 들어와서 돌봄정의 아젠더로 만나 융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① 법제화를 통한 돌봄노동의 사회화, ② 공동체 의식을 기반으로 한 사업 또는 운영조직 마련, ③ 돌봄서비스의 표준화와 전문화, 보상체계 구축을 통한 서비스의 관리, ④ 지역사회 성원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종합복지 서비스 체계 구축"으로 요약되는 돌봄정의와 JW모델의 정책적 지향은 기독운동이 추구해야 할 돌봄의 사회적 가치체계 구축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다.

23) (사)한국YWCA연합회, 「매뉴얼 2017-1 살림돌보미(NSC가사지원분야」(2017), 9
24) (사)한국YWCA연합회, 「매뉴얼 2017-1 살림돌보미(NSC가사지원분야」, 10.

3. 나가며: 기독운동으로서의 YWCA 돌봄운동의 의미

1) 여성인간화

'인간화'는 세계교회협의회(WCC) 제4차 총회(1968년, 웁살라)에서 본격적으로 대두된 개념이다. '인간화'는 베트남 전쟁,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와 케네디 형제의 암살, 프라하의 봄 등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는 국제 사회의 현실에 대한 기독교의 응답이었다. 웁살라 총회는 정의와 평화, 그리고 인권을 핵심 아젠더로 다루면서 선교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였다.

> "첫째, 교회는 가난한 자들, 무력한 자들, 학대받는 자들, 무시받는 자들, 또 지루한 삶을 보내는 자들 편에 서는가? 둘째, 기독교인들은 참여의 수단으로서 타인의 문제들과 구조를 수용할 정도로 그들의 관심사에 주의를 기울이는가? 셋째, 그 기준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시대의 징조를 식별하고 새로운 인간성 성취를 향해 역사와 함께 나아가는 데 최적의 조건들인가?"[25]

달리 말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보장이 선교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첫 번째 기준으로 제시된 것이다. 이는 선교의 장소가 비기독교 국가나 지역이 아니라 인간을 비인간적으로 대하는 장소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었다.[26]

이러한 '인간화' 담론은 1960년대 한국에도 유입되어 크리스찬아카데미와 기독자교수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1975년 4월 YWCA도 "한국 여성과 인권"을 주제로 회원대회를 열고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 "YWCA는 기독교 목적을 가진 여성운동체로서 여성은 남성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음을 믿으며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여성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생기는 어떤 차별도 인정하지 않는다. YWCA 운동은 지금까지 단순한 여성 지위, 권리 행사 운동에서 한 걸음 더 발전하여 여성의 인간화 내지 여성 인권보장운동으로서 새로운 문화 창조와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 건설을 목표로 그 방향을 전환하고자 한다."[27]

---

25) WCC, "제4차 총회: 스웨덴 웁살라(1968)," 세계교회협의회 엮음, 이형기 역, 『역대총회 종합보고서』, 267.
26) 안승호, "'인간화' 개념의 기원과 방향," 「신학과 목회」 25집(2006.4), 10.
27) 「한국YWCA」 1975년 6월호(1975.6), 17.

이는 1970년대 중반이 되면 YWCA도 분명히 기독교 정신과 신학에 근거한 '여성인간화'를 추구하는 기관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실제로 1976년 YWCA는 '여성의 인간화'를 중점 운동으로 채택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후 전개된 YWCA의 돌봄운동 역시 '여성인간화'의 관점에서 해석될 필요가 있다. 유성희는 1970년대 YWCA의 운동이 "가장 소외된 여성 계층 문제에 활동의 초점이 맞추어졌고, 여성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도 문제를 안고 있는 소외 여성들의 지원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방식을 취하였으며, 그 결과로 인권운동으로서의 '소비자운동'과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저소득층 여성들을 위한 '직업개발'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평가하였다.[28)]

이런 평가는 최만자가 정리한 돌봄의 이해와도 상통한다. 불의에 대한 저항과 해방으로서의 돌봄의 성격이 '여성인간화' 담론에 고스란히 녹아 있기 때문이다. 제4차 돌봄정의포럼에서 다루어진 "돌봄노동과 인권"에서도 돌봄노동자가 겪는 모멸적 경험과 부당한 노동대우가 인권의 침해이자 존엄성의 훼손이라는 지적하면서 필리핀에서 통과된 '가사사용인을 위한 대헌장'의 문구 "가사노동자는 ... 가사노동자의 가사노동자의 인간 본질적인 가치와 존엄성을 떨어뜨리거나 비하, 저하시키는 행위를 받지 않고 제대로 대우받을 자격이 있다"고 되어 있음을 소개하면서 "한국사회도 이런 생각틀을 기본으로 가사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고려가 자리잡기를 희망"하였다.[29)]

가사노동의 사회화와 돌봄노동의 법제화, 그리고 공적 가치로서 돌봄의 자리매김은 본질적으로 여성의 해방과 연결되어있다. 이는 에큐메니칼 신학이 오랫동안 견지해 온 '인간화' 담론의 21세기적 변용이라 하겠다.

2) 더 온전한 '하나님 나라' 만들기

'하나님 나라'는 기독교 신학이 제시하는 대안적 세계로 당대의 지배문화에 저항하는 기독교의 은유와 상징으로 작동되어 온 개념이다. 하나님 나라는 그 표현에서 세상을 지배하는 왕으로서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오랫동안 가부장적 이미지를 차용해 왔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인간이 어떠한 지배로부터도 온전히 자유롭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대안적 사회를 향한 비전이기에 가부장적 이미지에 머무를 수 없다.[30)]

YWCA는 지속적으로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누가 우리 사회의 약자인가? 지금 누가 배제되고 있는가?'를 질문하여 왔다. 유성희는 YWCA가 '돌봄정의운동'을 선언한 것은 "시혜적 서비스나 자선 활동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가져

28) 유성희, 『한국YWCA 100년의 여정』, 204-205.
29) 문현아, "가사노동과 인권," 「제4차 돌봄정의포럼 자료집」(2014), 7.
30) 김은혜, "하나님나라와 상징: 문화분석을 통한 여성주의 하나님담론," 「한국기독교신학논총」 44호 (2006), 287-290 참조.

야 할 권리를 갖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권리를 찾게 해주고 모두가 평등하게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 정리하였다.[31] 돌봄정의운동이 더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독여성의 운동임을 명확하게 설명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랫동안 가부장사회의 인식 속에서 사적 영역에 머물러 있었던 돌봄노동을 사회로 꺼내어 돌봄노동자의 존엄성을 회복하고자 했던 YWCA의 움직임이 세상을 돌보는 탈핵과 평화운동으로 이어진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이는 아무도 없다'는 격언은 YWCA의 돌봄운동이 앞으로도 무한히 확장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앞으로의 YWCA가 또 어떤 배제와 차별에 신음하는 이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돌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갈지 기대한다.

31) 유성희, 『한국YWCA 100년의 여정』, 385.

발제 2

직업훈련과 가사노동자 권리운동으로서의 YWCA 돌봄운동에 대한 고찰

이 은 영
((사)한국YWCA연합회 제2부회장,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서론

YWCA는 초창기부터 돌봄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전쟁고아를 돌보는 활동, 빈민구제사업, 농촌봉사활동, 전쟁 후 돌봄을 위한 기숙학교 설립 등 다양한 형태의 돌봄과 관련된 활동으로부터 현재의 YWCA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YWCA운동의 근간은 돌봄에 대한 활동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한국YWCA 80년사에서 돌봄운동과 관련된 부분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직업훈련과 여성노동자 관련, 사회서비스의 3가지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구분에 따라 돌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떤 관점으로 돌봄을 운동으로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직업훈련은 여성의 능력개발과 empowerment와 관련되어 있다. 초창기 활동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최용신의 천곡강습소에서는 재봉, 수예 등을 가르쳤고 기청양재여숙에서도 양재강습, 양복실습반 운영 등 여성에 대한 기술직업훈련을 했다. 1960년대에는 파출부라는 새로운 직종을 개발하고 직업훈련을 실시하였고 이후 도배사 등 새로운 직종개발과 직업훈련을 통해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해왔다. 이러한 역사는 Y의 운동의 큰 줄기로서 여성에 대한 직업훈련이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여성노동자에 대해 관심을 갖고 관련하여 60년대부터 저소득 근로여성에 대한 시민교실, 교양교육, 야간학교 등을 꾸준히 전개하였고 여성은행원 결혼각서 폐지운동, 근로조건개선을 위한 노동운동지원, 가정부보호캠페인, 근로여성실태조사, 버스안내원근로조건개선운동 등 여성노동자의 근로환경개선과 노동권확보를 위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왔다.

사회서비스분야에서는 1920년대 자선활동으로 사회구제사업과 문맹퇴치운동 등으로부터 시작되어 이후 전쟁 후 전쟁고아 및 피난민에 대한 구호사업, 일하는 여성을 위한 탁아소 사업, 빈민지역 봉사활동, 장애인편의시설 의무화 규정 제도개선 운동, 노인복지관 개관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진행해왔다.

100년사를 준비하면서 이러한 돌봄에 대한 다양한 YWCA의 활동을 새롭게 정리하고 해석하는 작업이 매우 필요한 일이다. 2014년 여세 2호에서 돌봄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한번 제시한 적이 있는데 이를 참고하여 본고에서는 지난 YWCA역사에서 직업훈련으로서의 돌봄운동과 노동자 권리증진 운동으로서의 돌봄운동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어떻게 바라봐야할 지에 대한 논의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본론

1. YWCA 역사에서 살펴보는 돌봄운동의 성격

YWCA 돌봄운동을 이야기할 때, YWCA의 역사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YWCA는 설립 초기부터 꾸준히 지역사회에서 돌봄의 역할을 하며 운동을 지속해왔다.

이는 YWCA 초기역사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YWCA의 역사를 보면 초기부터 가사노동 등 돌봄노동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1)]

1855년 영국 런던에서 처음 시작된 YWCA는 산업혁명의 여파로 활동이 크게 영향을 받아 도시 내 빈곤을 완화하고 도시지역으로 이주한 여성노동자

1) "History," Young Women's Christian Association.
Wolfe, Lahle. "The History and Impact of the YWCA on Women's Rights," The Balance. Sept. 14 2016.
May, Vanessa H. Unprotected Labor Household Workers, Politics, and Middle-Class Reform in New York, 1870-1940.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11.

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그들이 사회의 주류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에 주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직업훈련이 최초로 시도되었다. 산업혁명 시기 많은 농촌의 노동력이 도시로 이주하면서 공장노동자로 전환되었고, 이 과정에서 도시에 이들을 위한 안전한 숙소 등의 필요가 크게 증대되었다. 특히나 사회적으로 취약한 여성노동자들에게는 안전하고 저렴한 숙소가 매우 중요한 생활의 기반이 되었다. 영국 YWCA는 여성노동자를 위한 안전한 숙소를 제공하고 그 장소에서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레크리에이션프로그램과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였다. 많은 유럽의 YWCA가 호스텔이나 저렴한 숙소를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초기의 필요로부터 숙소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한 전통으로부터 기인한다. 숙소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여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YWCA는 1858년 미국 뉴욕으로 전파되었고 미국 역시 초기의 서비스는 노동 계급 여성을 대상으로 제공하였다. 노동계급 여성을 위해, 직업교육 및 고용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뿐만 아니라 체육관, 도서관, 저렴한 식당과 같은 자원을 제공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YWCA는 1904년부터 노동 보호법 및 기타 개혁을 옹호하는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 당시에는 가사 노동에 대한 노동 보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는 않았지만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를 위해 양측의 장단점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여, 노동자와 고용주 간의 관계에 많은 활동을 집중했으며, 가사 노동자와 고용주 모두를 옹호함으로써 가사 노동자와 고용주 사이의 가교 역할을 했다.

YWCA는 가사 노동자의 취업을 도왔으며, 이를 위해 직업훈련의 성격을 띤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사회에서 활동하였다. 이 당시에는 백인과 흑인 YWCA가 분리되어 있었는데 흑인을 위한 뉴욕 YWCA 할렘 지부와 브루클린 지부는 1930년대 초에 가사 노동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이러한 서비스를 개발한 최초의 지부이다.

YWCA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지부가 최초로 가사 노동자를 지원하고 제공했지만, 다른 지부들도 곧 이를 따라 가사노동자노조(DWU), 도시연맹 등 가사 노동자와 함께 일하는 다른 단체들과 협력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초기, 영국과 미국 YWCA의 역사에서 살펴보듯이 가사노동 등 돌봄노동에 대한 직업훈련과 지역사회 서비스, 취약계층 여성노동자의 권리운동은 초창기부터 시작된 오랜 YWCA 활동방향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돌봄에 대한 YWCA 직업훈련의 역사

한국 YWCA도 외국에서의 이러한 조류와 다르지 않은 길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YWCA가 창립되던 1922년은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의 압제 속에 살아가던 때였으며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여자는 집안 살림을 하면서 남편에게 복종하고 자녀를 키우는 일만이 미덕으로 강요되던 시대였다. 한국 YWCA는 초기부터 여성들이 독립된 인간으로 살아가며 자아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속한 가정생활을 향상시키는 생활계몽운동을 펼쳐야겠다는 생각으로 직업기술과 생활기술교육을 시작하였다. 1924년 2월, 경성 YWCA는 부녀자 문맹퇴치를 위해 여자노동야학원을 설립하였고 4월에는 여학생 기숙사를 설립하여 여성노동자를 위한 안전한 숙소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또한 여자전용도서관을 태화여자관 태화정에 개관하였다. 1926년에는 YWCA와 사회주의 여성 연합으로 직업여성의 친선도모를 위한 망월구락부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1940년 11월에는 경성 YWCA가 기청양재여숙(基靑洋裁女塾)을 설립하여 백색 무명옷에 염색하기, 양재와 요리강습을 가르쳤고 양복 실습반도 개설해 처음으로 여성들에게 직업교육을 실시하였다.

1920년대의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농촌지역이었고, 농업이 위주인 시대였다. 따라서 한국 YWCA연합회에서는 농촌주부들의 정신을 일깨워 농촌을 발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해 농촌운동을 하던 최용신을 수원 샘골에 파견하였고, 1932년 5월에 강습소 인가를 받아 농촌주부학교 '천곡학원'을 설립하였다. 천곡학원에서는 18~40세의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바느질, 요리법, 세탁법, 염색 등을 가르쳤다. 최용신 간사는 이 일에 전적으로 헌신해 농촌사회를 변화시키고 자립시키는 역할을 했고, 후에 소설가 심훈이 쓴 농촌계몽소설 '상록수'의 주인공으로 묘사되었다. 1934년에는 농촌 부녀지도자 훈련소를 개소하였다.

YWCA활동은 일본의 강제 침탈 후 1941년에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 해방 후 1948년부터 다시 YWCA 활동이 시작되었으나 곧이어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로 인해 부산으로 피난을 갈 수 밖에 없었다. 한국YWCA연합회는 1952년 피난지 부산 동래 '농예원'에서 양재, 타이프, 농예, 재봉, 축산, 원예, 수예, 편물, 가내수공업, 요리 등의 기술을 가르쳤다. 오늘날의 여성인력개발센

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다수 제공되었던 것이다. 동래 농예원은 원래 1948년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회로부터 한국선교회를 통해 기증받은 것으로 부산YWCA에서 농촌부녀자들을 위한 직업교육의 장소로 쓰던 곳인데 한국YWCA연합회가 이를 위임받아 직업훈련장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한국 YWCA 창립 30주년이었던 1952년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보면 동래농예원 직업훈련 참가자 35명, 부산·대구·대전·순천 YWCA가 실시한 4개의 야학교에 242명, 서울·조치원 YWCA 등 2개 양재학원에 57명, 8개 영어반에 84명, 2개 성경반에 35명, 2개 주간공민학교에 연인원 500명, 서울에서 열린 2개의 강습반(독일어, 타이프반)에 15명 등이 참가하였다.

1960년대 YWCA는 소외된 빈민가정의 소녀와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기술교육을 실시하였다. 1961년 6월 서울 YWCA는 공장여직공을 위한 교양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9월에는 직업여성을 위한 숙소와 알선사업을 위해 한미재단과 UNKRA(국제연합 한국부흥위원단)의 원조로 서울 후암동에 '소녀의 집'을 건립하였다. 이곳에서는 꽃꽂이, 요리강습, 미용체조 등을 가르쳤고 일어회화반, 영어회회반을 조직해 제공하였다. 광주 YWCA는 1962년 보건사회부의 허가를 받아 윤락여성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명여사'를 설립하고 미용기술 등을 가르치는 직업교육을 실시하였다.

초창기부터 YWCA는 여성들에게 그 시대가 필요로 하는 직업교육을 실시해왔다. 1960년대에는 한국의 산업화에 따라 여성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었고, 여성의 교육수준이 향상되면서 직업에 대한 여성의 인식도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게 되자 YWCA는 가정생활을 돕는 파출부사업의 필요성을 느꼈다. 서울 YWCA는 1966년에 '시간제 가정부'를 새로운 직종으로 개발하여 지금의 돌보미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우리사회의 주거환경이 주택에서 아파트로 바뀌고 소위 '식모'로 불리며 상주하던 여성가사노동자의 역할이 출퇴근 형식의 파출부로 달라지게 되었는데 이는 어느 한 가정에 예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서 정해진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직업인의 개념으로 전환된 것이며, 가정주부들은 구하기 힘든 입주 가정부 대신 필요할 때마다 훈련된 인력을 공급받는 파출부제도를 크게 환영하였다.

서울 YWCA는 1966년 12월 도시의 영세가정 주부를 대상으로 신원보증서, 주민등록 초본, 재정보증서 등의 서류를 갖춘 사람으로 한글을 알고 용모가

단정하고 연락처가 분명한 20~50세 미만의 여성을 선정해 일주일 동안 시간제 가정부 훈련을 실시하였다.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 근무에 점심을 제공받고 1일 300원, 8시간이 초과하면 시간당 50원을 추가로 받았다.

1968년 서울 YWCA 봉천동 사업관이 실시한 가정부 훈련반에 등록한 사람은 7명이었다. YWCA에서는 이들을 상대로 예절(몸가짐, 말씨, 전화받기 등), 위생(청소, 설거지, 소독), 차 끓이기, 김장, 알뜰한 부엌살림, 계절요리와 전기기구 사용법과 관리법을 훈련시켰다. 이 결과 1970년에는 2,549가정에 1,311명을 파출시키게 되었다.

1972년에는 해외취업알선 업체로부터 가사보조원 교육을 의뢰받아 4월 1일~5월 31일까지 저녁마다 2시간씩 13명을 훈련시켰다. 외국 가정과 미국에 보낼 가사보조원에게 5주간의 교육을 통해 영어회화, 기구명 익히기, 전화받는 법, 세탁에 관한 상식과 세탁기 다루는 법, 침대 정리하기, 냉장고 사용법, 청소도구 사용법, 꽃꽂이 등의 과목을 가르쳐 파출시켰다.

서울 YWCA의 파출부 사업이 좋은 반응을 보이면서 1970년에 전주, 1972년에 대구, 1973년 춘천, 1974년 수원·인천·부산 YWCA가 이 사업을 시작하였고 1975년 대전, 1976년 광주, 1977년에 마산과 군산 YWCA가 차례로 사업을 시작하였다. 파출부 사업을 시작한 지 10년만인 1977년에는 12개 회원YWCA가 시작할 정도로 이 사업은 YWCA의 중심사업이 되었다. 이 사업을 통해 부업을 갖게 된 인원은 1,164명이었고 1977년 12월 말에는 가정부와 이용자가 모두 YWCA 회원으로 가입해 연간 회원증만 해도 4,424명에 달했다.

한국YWCA연합회는 1973년 가정부 보호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가정부를 둔 가정주부와 가정부 양쪽의 의견을 토대로 한 상호절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가정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서울 YWCA를 비롯한 12개 회원YWCA 회원 263명과 회원가정에 상주하는 가정부 19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정부에 대한 전문교육의 필요성과 이미 여러 회원YWCA가 실시하고 있는 시간제 가정부의 활용을 더욱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77년에는 전국YWCA 파출부 실태를 조사해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모집방법, 구비서류, 근무시간, 임금, 교육내용, 파출부와 회원들의 요구사항, 문제점 등을 파악하였다. 가정부를 전문적으로 직업화하는 시점에서 시간제 가정부 외에 일반 가정부와 가정주부의 기대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

냐를 알아보는 프로그램을 전개하기도 했다.

이 사업은 인력수급난에 봉착한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이들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 파출부를 하나의 직업으로 정착시켰다는 데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파출부를 모집할 때마다 지원자가 넘쳐나 다 수용할 수 없을 정도였다. 훈련희망자는 대부분 영세가정의 주부가 많았고 간단한 시험을 거쳐 합격한 사람들에게 훈련의 기회를 주었다. 서울YWCA의 경우 일주일간의 교육을 통해 대인관계, 파출부로서의 자세와 책임, 가정보건, 산모돌봄과 아기 돌보기, 알뜰한 소비생활, 전기기구 사용과 화재예방, 소방법, 가정생활과 자녀교육, 위생, 응급조치법과 요리, 세탁, 청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생활에 필요한 전문적인 직업인으로서의 지식과 기술을 가르쳤다. 파출부의 근무시간은 회원 YWCA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오전 9시~오후 7시였고 점심과 함께 시간당 1,000~1,300원까지 받게 되었다. 이는 처음 파출부 사업을 시작했던 1966년 당시 1일 300원에 비해 4배 이상 늘어난 액수였다.

한국YWCA연합회는 파출부의 통합적인 교육을 위해 1966년에 'YWCA파출부 교육교재'를 발간하고 더불어 청소법, 세탁법을 슬라이드 필름으로 제작해 각 회원 YWCA가 가정부 훈련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파출부 사업을 하는 회원 YWCA는 훈련생들의 지속적 교육과 자치적 활동을 위해 월 1회씩 모임을 갖고 교양강좌, 상호 정보교환과 친목 도모 등으로 파출부들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에 도움을 주었다. 파출부들은 YWCA회원이라는 긍지를 갖고 사용자인 주부에게 YWCA에 대한 소개를 하는 등 이들을 통해 YWCA에 대한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1970년대 파출부 사업은 전국 26개 YWCA 중 23개 회원 YWCA가 실시했으며 수요에 따라 외국인 가정에 파견되는 파출부, 환자돕는 이, 요리사 훈련을 개발해 필요한 회원가정에 훈련생을 보냈다. YWCA파출부 훈련사업은 여성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요구와 여성지위향상에 이바지한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되어 노동부로부터 1984년 5월에 무료직업안내소 인가를 받게 되었다.

서울YWCA에서는 1977년 6월 독산동 근로여성회관을 개관하고 그 이듬해인 1978년 2월에 도배, 타일, 페인트 훈련을 시작하였다. 독산동 근로여성회관의 개관은 YWCA가 직업훈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는 데 박차를 가했다. 여성의 새로운 직종훈련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산업

사회에 필요한 여성기능 인력을 양성하고 기능직은 남성직종이라는 고정관념을 불식시킨다. 둘째, 저소득·저학년 여성들에게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고용을 증대시키고 생활수준과 소득수준을 향상시킨다. 셋째, 파출부 등 단순 노동자에게 직업의 긍지를 심어준다. 넷째, 한국사회에 여성 직업교육의 모델을 제시한다. 다섯째, 미진학 청소년들의 고용증대로 청소년 선도에 기여한다. 서울 YWCA는 여성직업훈련위원회를 두고 연구조사-커리큘럼 고안-활동 사전준비-교육-현장실습-취업알선-평가 등 7단계로 모든 사업을 지도, 감독하였다.

YWCA의 여성직업훈련 사업은 시대적 변천과 여성들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직종과 직업에 대한 고질적인 성차별의 개념을 불식시키는 희망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저소득층 여성들이 부딪힌 현실문제에 적절하고도 합리적으로 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YWCA의 공신력과 사회적인 이미지를 높이는 데도 크게 공헌했다. 이러한 직업훈련 사업은 한국YWCA의 특별한 업적으로 손꼽히는 부분으로 저소득층 여성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인권 사각지대에서 여성의 직업영역을 공적으로 인정받아 여성의 경제활동과 직업의식을 높이면서 여성의 권익옹호에 기여했다.

1978-1987년 사이 직업훈련 및 취업현황을 보면 파출부, 환자돕는 이, 외국인가정 파출부 등 돌봄분야에 대한 직업훈련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78-1987년 직업훈련 및 취업현황

직업	훈련인원	취업인원
도배사	598명	518명
파출부	1,898	1,893
외국인가정 파출부	133	133
환자돕는 이	637	619
호텔미화부	300	270
건축설계 제도사	274	274
귀금속 세공	187	139
요리사	112	109

직업	훈련인원	취업인원
피부관리사	418명	387명
기계제도사	52	51
판매사	68	61
장신구 디자이너	14	13
타일사	140	127
표구사	102	91
금은방	932	27
골동가구 및 목공예	15	15

YWCA 돌봄운동 사업은 이후 직종의 선호도에서 약간의 변화를 보였다.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던 파출부 교육은 점차 응모자가 줄어든 대신 환자도우미는 1988년 전년도에 비해 61%가 증가한 549명, 탁아모는 1988년보다 180%나 증가해 9개 회원Y에서 3,051명이 신청했다. 그러나 이 교육도 1989

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신청자가 27.7% 감소했다. 이런 변화는 훈련생들의 인식의 변화가 가져온 것으로, 가사노동과 관련된 단순한 직종보다 좀 더 전문적인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여성들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었다.

이 돌봄 사업의 성공은 효율성, 효과성, 공평성, 편익성과 직업에 대한 투철한 접근성을 시도한 예였다. 또 도우미라는 직종이 산모도우미, 가사도우미, 간병사 등으로 세분화되었다. 산모도우미는 현재의 간병사로 파출부 사업과 같이 오랜 기간 YWCA의 중요 직업훈련 사업이 되었다. 간병사는 환자들을 돌볼 수 없는 가족들을 도와 병원이나 가정에서 일하도록 한 것인데 이들은 2주일간 훈련을 받고 가정과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데 YWCA 간병인들은 정해진 복장을 입고 친절하게 환자들을 관리함으로써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었다. 2005년 5월에는 YWCA 간병사들이 제1회 간병사 대회를 열고 전문직업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일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3. 노동자 권리 운동측면에서의 돌봄 운동

파출부 훈련사업을 포함한 사업영역은 당시 '가사서비스 영역'으로 통칭되었다. 초창기에 가사서비스라는 말로 불리던 이 영역은 돌봄의 전 분야로 확대되어 '돌봄서비스' 영역이 생겨나게 되었다. 돌봄서비스는 가사관리와 영유아 아동 돌봄, 환자 간병 등의 돌봄서비스 영역을 일컫는 말이다. 한국YWCA는 비공식 노동 분야에서 이미 존재하던 가정부를 '파출부'로 호칭을 바꾸는 동시에 유급 일자리의 개념으로 사회적인 인식을 갖게 했다.

그러나 가사에 대한 유급 노동형태의 서비스가 존재함에도 이 영역은 비공식노동의 형태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그 결과 이 영역에서 일하는 이들은 근로자로서의 권리나 지위를 갖지 못했다. 돌봄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은 나날이 높아졌으나 돌봄 분야의 노동이 사회화 또는 제도화되지 못하고 사적 영역의 개인 간 거래에 대해 중간에서 민간단체나 유료사업자가 연결시켜주는 형태의 '소개 업무'로 존재하고 있었다.

YWCA는 무료직업소개사업의 형태로 전국에서 가사노동자, 간병인 등의 돌봄서비스를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연결함으로써 돌봄노동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한국YWCA는 저소득층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이 사업을 유지하면서 돌봄서비스에 참가하는 당사자들의 권리나 일자리의 질에 대

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법적인 제한으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더하여 한국YWCA가 내부적으로 갖고 있던 인식과 구조도 문제였다. 파견사업은 대인적 사회서비스로 분류되는데 이 영역은 상호간 관계성이 가장 중시되기에 공급기관이 가진 신뢰성이 이 사업에 매우 중요하다. 한국YWCA가 이 사업을 민간 영역에서 주도적으로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YWCA라는 기관의 공신력 때문이었다. 또한 돌봄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두 '회원'으로 지위를 갖고 있어서 한 조직 안에서 관계가 형성될 수 있었다. 그러나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두 조직 내부의 회원으로 가입된 상태에서 노동자만의 입장을 대변하기 어려웠고, 실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들의 경우 조직의 의사결정구조에서 목소리를 내거나 역할을 맡는 등의 조직 리더십으로 활동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지역의 경우 이들이 내는 회비가 조직의 절대적인 수입이 되는 경우가 많아 이 사업은 당사자를 위한 운동의 형태보다는 조직의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분류되었다.

돌봄노동을 사회적 공식 부문으로 공식화하는 것을 '돌봄노동의 사회화'라고 한다. 돌봄노동을 사회하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는 근로기준법 제 22조 가사사용인 적용 제외 조항 때문이었다. 가사사용인은 '가정부, 파출부, 유모, 집사' 등 일반 가정의 가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노동부는 가사사용인인가 아닌가의 구분을, 가정의 사생활에 관한 것인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 2조 1항에 따르면 근로자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사적인 공간, 즉 집에서 일하는 경우를 말하나, 실제로는 병원 등에서 일하는 간병인도 가사사용인으로 간주되어 법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이들이 법적으로 근로자 지위를 갖는다는 것은 관련법인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퇴직급여보장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 산업재해보상법, 고용보험시행령 등 노동법에서 인정하는 지위를 갖게 됨을 의미한다.

한국YWCA는 이러한 법적 보호가 가사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되도록 가사노동자 관련 단체들과 연대하여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정부는 번번이 이를 거부하였다. 2014년 한국YWCA연합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에 가사노동자의 고용보험적용과 산재보험 적용에 대한 내용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답변은 가사노동이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근로여부 확인이 어려우며 가정 내에서 근로감독을 실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자유

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적용이 어렵다고 하였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가사노동자에 대해 근로자 지위를 촉구하는 상황이 되었다. 2011년 UN 산하 국제노동기구(ILO)총회는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을 체결했고, 한국정부도 찬성표를 던졌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가사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 최소한의 근로조건과 최저임금의 보장, 알선 소개업의 적절한 규제, 정부의 적극적 정책 수립 등이다.

UN 협약은 이에 가입한 나라에서는 국내에서 시행해야 하는 국제법상의 구속이 있으나 한국 정부는 협약을 비준할 경우 근로기준법의 가사사용인 배제 조항을 즉시 삭제해야 함을 이유로 비준을 미루고 있었다.

한국 YWCA는 연합회 주관으로 1973년에 가정부 보호캠페인을 펼친 경험이 있다. 1975년에는 파출부 업무로 통합되어 있던 간병 분야를 분리했고, 지역에서는 '환자 돕는 이'를 교육하고 파견하기 시작했다. 이후 파출부라는 명칭은 도우미, 돌보미, 가사관리사 등 다양한 명칭으로 변화했고 YWCA에서는 돌보미라는 호칭으로 사용하였다.

1990년대 들어 사회적으로 보육과 돌봄의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공공근로와 사회적 일자리 형태가 등장하면서 한국YWCA의 돌봄회원들이 지역에서 취약계층 지원의 돌봄 바우처 사업 등에 적극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정부는 민간단체가 하고 있던 돌봄사업을 공식 업종으로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2008년에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 선도사업을 실시했는데 이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단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이었다. 2년간 10억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하되 기관부담이 30%이상이어야 하며 취약지역 지원이나 돌봄사업 네트워크화, 신규 고부가가치형 사회서비스 육성의 3가지 분야로 신청을 받았다. 한국YWCA연합회는 돌봄사업을 전문화하려는 목적에서 이 사업에 참여했다. 이 사업을 통해 '돌봄과 살림'이라는 브랜드를 개발하고 전국의 돌봄사업의 통합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돌봄운동의 방향성에 대해 내부의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 하나는 돌보미 공급사업으로 사업화를 시키자는 것으로 돌보미들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프랜차이즈 형태로 접근하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영리사업화가 이 사업의 원래 목적과 더불어 YWCA운동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이 사업은 2010년에 마무리되었는데, 한국YWCA는 돌봄사업을 통해 영리를 추구하는 시장형으로의 전환을 하지 않고 시민운동으로서 공공성과 노동

권 확립, 보편적 복지와 공식성의 원칙에 입각한 방향으로 좌표를 새롭게 설정하였다. 이를 위한 정책수립에 인식조사결과를 포함하였고 전문가들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로 한국 YWCA돌봄운동의 모델로 '모두를 위한 정의와 사회복지 서비스모델(JW모델)을 제시했다. JW는 Justice based Welfare, 즉 정의에 기반을 둔 복지라는 의미이다. JW모델은 기본적으로 관계망의 형성 모델이며 정부, 비영리기관, 돌보미, 이용자가 생산-유통-소비의 중첩적 관계를 이루면서 종합적인 복지를 전달하는 좋은 관계망 형성을 한다는 것이다. 이 모델을 제안한 연구자 은수미는 JW모델의 필수조건으로 공공성, 노동권의 확립, 보편적 복지, 공식성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 JW모델은 한국YWCA 돌봄정책협의회에서 발표되었고 이후 가사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한 '돌봄정의운동'의 기초가 되었다. 2014년에는 5차례의 돌봄정의포럼을 개최하여 돌봄운동의 개념과 목적에 대한 회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갔다. 또한 연합회 내에 위원회로 돌봄과 살림 위원회가 설치되어 지속적인 돌봄정의운동에 대한 방향성을 고민하였다.

한국YWCA는 사업목적의 재정립과 사업형태에 대한 점검이 필요했고 유사 비영리기관 간 협의를 강화할 필요성과 정부의 파트너십 형성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YWCA돌봄조직 연구 TF'를 개설하였다. 당시 오경혜와 송록희가 사무총장으로 있는 성남과 부천 두 곳을 시범지역으로 삼아 당사자성을 가진 협동조합을 설립하기로 하고 돌봄회원 당사자 협동조합 조직으로의 사업전환을 지원하였다.

2015년에 부천YWCA가, 그리고 2017년에는 성남YWCA가 돌봄협동조합을 출범시켰다. 이 중 부천의 돌봄과 살림 협동조합의 경우 돌봄조합원 당사자가 이사장을 맡았다. 민간단체가 조직한 돌봄사업 관련 협동조합 중 당사자가 이사장을 맡은 최초의 사례였다. 협동조합의 형태는 돌봄회원과 이용회원, 그리고 YWCA 활동가가 함께 참여하는 다중 이해관계자 협동조합 모델로 설립되었다. 협동조합 설립은 조합원들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이루어질 수 있다.

회원들이 조직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부천과 성남 YWCA는 이를 위해 매달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함께 워크숍을 조직하는 등 지속적이고 치열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하지만 협동조합으로 전환되면서 초기의 출자금과 초기 운영비 등으로 최소 몇 년은 예상되는 임금감소를 돌보미 당사자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였다. 부천 YWCA는 2014년과 2015년 2년간 전체 돌봄회원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이해교육을 7회 진행하였고 돌보미 임원교육을 매월 1회 진행하였다. 이러한 결과 2015년 5월 15일 한국 YWCA 역사상 최초의 돌봄과 살림 협동조합의 창립총회가 열렸다. 창립실무를 맡았던 당시 부천 YWCA 사무총장 송록희는 돌봄협동조합 설립후 가장 큰 변화로 돌보미 회원들의 주체성 향상을 꼽았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YWCA는 돌봄에 대한 운동의 큰 축으로 가사노동자의 주체성 향상을 통한 공동체적 가치의 실현, 그리고 당사자조직의 역량강화를 추진했음을 살펴볼 수 있다.

한편 한국 YWCA는 가사근로자의 권리증진을 위한 입법활동을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관련 단체들과 연대하여 꾸준히 지속하였다. 2010년 처음 김춘진 의원의 발의로 국회에 제안된 이후 거듭 실패를 거듭해 오던 입법화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것은 10여년이 더 지나서였다.

한국YWCA가 오랜 기간 노력해 온 가사근로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이 2021년 6월 15일에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되었다. 이 법은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로 명명되어 2021년 6월 15일 공포되고 2022년 6월 18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가사법의 제정목적은 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과 함께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을 조성하는 것이다. 지난 70년 가까이 비공식 노동으로 존재하던 가사노동이 '공식 노동'으로 사회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인정된 것이고 가정 내 가사노동의 가치를 공식화하고 평가, 측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여성운동에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 이것은 지금까지 저평가되고 인정받지 못한 돌봄노동의 가치가 개선되는 출발점이다. 가사법의 제정은 당사자들 뿐 아니라 모든 여성의 권리와 지위향상에도 큰 걸음을 내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YWCA는 가사노동자의 법적인 지위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ILO의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제189 협약)'이 채택된 다음 해인 2012년에 ILO가 '국제 가사노동자의 날(매년 6월 16일)'을 선포했다. 한국 YWCA는 협력단체인 한국가사노동자협회와 한국여성노동자회 등과 함께 '국제 가사노동자의 날'에 전국의 돌봄회원들이 광화문광장에 모여 가사노동자법 제정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수없이 많은 법률 제정 요구에 이어서 2018년에는 가사근로자법 조속 처리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했다. 계속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 제정은

계속 미루어졌다. 이에 한국 YWCA는 2021년 3월에 유관 단체들과 함께 '가사노동자 권리보장법 제정 1만인 서명운동'을 다시 전개했고, 전국 회원들과 시민들의 동참을 요청하는 캠페인과 국회 앞 시위를 이어갔다.

한국 YWCA가 진행한 가사노동자의 지위향상을 위한 활동은 돌봄노동 사회화 운동의 일환이었는데, 이 운동을 주도한 주체는 바로 돌봄회원들이었다. 사회서비스 사업이 확대되던 시기에 맞춰 한국 YWCA는 2006년부터 '여성의 인권과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중점 운동으로 결정하고 돌봄사업을 공식화할 것을 결의하였다. 2007년에 전국의 돌봄회원 대표 2,600명이 모여서 '돌봄노동의 사회화와 안정적인 직업으로서의 발전을 촉구한다'라는 결의문을 발표하였다. 2008년에 시작된 사회서비스 선도사업을 통해 돌봄과 살림이라는 브랜드로 사업을 통합하고 JW모델을 추구하면서 당사자 중심의 협동조합 설립이라는 사업의 구조전환을 시도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돌보미 회원들이 한국 YWCA 운동의 주요한 주체임을 보여주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2010년에는 전국 돌보미들이 참여하는 'YWCA 돌보미 비전축제'를 연합회가 주관하여 열었고, 2012년 8월에는 한국 YWCA 창립 90주년 전국회원대회에서 경력 30년 이상의 돌봄회원에게 YWCA돌보미 대상, 20년 이상 활동한 35명에게는 돌봄상을 , 10년 이상의 활동회원 270명에게는 나눔상을 수여하고 격려하였으며 2016년 8월에 열린 전국회원대회에서는 한국 YWCA 돌봄운동 50주년을 기념하여 돌봄회원 대상을 신설하여 가장 오랫동안 활동해 온 서울 YWCA 돌봄회원단과 부천 YWCA 돌봄과 살림 협동조합에게 대상을 수여했다. 이와 함께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2014년 한 해 동안 '돌봄정의 포럼'을 개최하여 돌봄노동에 대한 깊은 이해와 돌봄 사회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초기에 한국 YWCA는 민간 영역에서 직업 알선과 파견의 형태로 사업을 시작했고, 조직운영의 기반이 되는 재정사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한국 YWCA는 이 사업이 단순한 일자리 매칭에 그치거나 개인과 기관의 경제적 이득을 가져오는 사업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그 결과 '돌봄정의'라는 새로운 운동 영역을 발굴하게 되었다. 그리고 당사자 주체의 운동으로 돌봄정의운동을 전개해 나가면서 가사노동자의 권리증진을 위한 운동을 꾸준히 지속하였다. 그 결과 마침내 2021년 6월에 10여년간 유관단체와 가사노동자들이 간절히 염원해 온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되었고 2022년에는 발효가 되었다. 가사법 발효 이후 많은 지자체들이 관련 된 조례를 제정하여 실제적인 법안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2021년 7월 광주광역시에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가 통과되어 관련된 지원기반이 마련되었고 이후 2021년 9월 충청남도, 2021년 12월 울산광역시, 2022년 3월 서울특별시, 2022년 4월 인천, 2022년 7월 경기도 등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다.

결론

YWCA(Young Women's Christian Association)는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권리와 웰빙을 증진하기 위해 활동하는 기구이다. YWCA는 여성들의 직업 훈련과 교육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그 중에서도 돌봄운동은 여성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YWCA 돌봄운동은 19세기 말부터 시작되었다. 그 당시 여성들은 가정과 가족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맡았으며, 이로 인해 직업 훈련이나 개인적인 발전에 어려움을 겪었다. YWCA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여성들이 자신의 가정생활과 경력 발전 사이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돌봄운동을 시작했다.

YWCA 돌봄운동은 기본적으로 여성들에게 안정된 직장 생활과 경력 발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재능 있는 여성 인력의 개발과 사회 참여 증진을 목표로 하며, 취약계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직종개발을 통해 사회적 역량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YWCA 돌봄운동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에서 기여해왔다.

첫째, 가사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용자들이 가사노동에 대한 염려 없이 다른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삶의 질의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둘째,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여성들에게 직업훈련과 직업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립가능성과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셋째, 사회 포용 실현: 다양한 연령 및 필요를 가진 사람들에게 고품질의 돌봄 서비스와 관련된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사회 전체에서 포용적인

환경 조성이 가능하게 해 준다.

넷째, 사회 운동 및 정책 개발: YWCA는 사회적 포용성 실현과 여성 권리 증진을 위해 사회 운동 활동과 정책 개발에 힘쓰고 있는데 돌봄 관련한 성평등 정책 추진, 가사노동자협의회 구성 지원 등의 활동을 통해 사회 변화와 시스템적 개선을 추구한다.

다섯째,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 YWCA는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리더십 발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리더십 교육, 네트워킹 기회, 멘토링 등의 활동으로 여성들이 자신감과 능력을 강화하여 사회적 역량을 향상시키고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이러한 의미 있는 돌봄운동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시각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는 돌봄에 대한 직업훈련적 시각이다. YWCA는 초기부터 돌봄에 대한 사회적 시각을 기반으로 직종개발을 통한 직업훈련의 기반을 다져왔다. 지금도 매월 가사서비스 인력에 대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제공하고 있다. 취약계층 가정의 여성들이 직업인으로 경제활동을 통해 자립의 기반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또 하나는 이렇게 직업훈련을 통해 배출한 수많은 가사노동자에 대한 권리 증진을 위한 활동이다. 직업훈련을 통해 많은 가사노동자를 배출하고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지난 70여년간 가사노동자는 사회적으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근로자에 포함되지 못하였으며 사적인 고용의 특징으로 인해 아무런 노동법상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을 겪어왔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가사노동의 공공성을 인식하고 가사노동자의 권리증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노력을 많은 유관 단체와 함께 진행해 온 결과 지난 2021년 가사근로자 권리증진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발효되었다.

그럼에도 아직 가사노동과 돌봄에 대한 인식과 여건 향상은 갈길이 많이 남아 있다. 그동안 가사노동자를 배제한 채 확대되어 온 노동환경의 구조적 변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확대, 가사서비스 이용자의 혜택, 체계적인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 대 국민 인식개선 등의 많은 해결과제가 남아있다.

발제 3

여성노동운동으로서의 YWCA 돌봄운동

윤 정 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Ⅰ. 들어가며

2014년 여세2호 편집장 서문에 이런 문구가 있다. "지금 이곳에 돌봄을 필요로 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돌봄노동자의 돌봄에 대한, 돌봄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에 관한 의미를 담은 문제제기로서 돌봄노동의 사회화를 강조하는 적절한 표현이다.

돌봄민주주의를 저술한 트론토(1993)는 모든 사람은 잠재적으로 돌봄수급자이자 돌봄공급자이며, 현대 사회에서 돌봄은 사회정책의 일부이면서 시민의 사회적 권리의 일부라고 했다. 사회권은 개인들이 자신들의 생존이나 노동, 주택, 교육, 문화, 환경 등과 관련하여 국가나 사회에 대해 가지는 '급부(청구)권'을 의미하며, 모든 개인은 자신들의 삶을 위해 필요한 재화에 대해 적절한 분배의 권리를 가진다는 의미에서 '사회적 (분배)참여권'으로 이해되기도 한다(장은주, 2016: 188). 노동기본권에 해당하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도 이런 점에서는 사회권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YWCA 여성운동에서 최근 20년, 그 안에서도 2010-2015년은 매우 독특한 시기에 해당한다. YWCA의 여성운동사에서 아주 짧고 굵게 나타났던 일종의 사건으로 볼 수 있는데, '노동조합이 아닌 조직으로 돌봄노동자를 조직했던 경험'의 기간이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으며 역사적 의미는 어떻게 부여할 수 있는가?

이 글은 2002년 이후 최근 20년 동안 한국YWCA의 돌봄운동을 여성운동의 시각에서 고찰하는 목적을 지닌다. 역사적 기록서로 편찬하기 위한 밑자료이지만 자료를 추출하고 그것의 의미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자료검토자의 해석이 포함되었다.

여성운동으로서의 돌봄운동은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경제적으로는 노동시장, 정치적으로는 여성의 이해대변과 정치적 기회구조 영역)에서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실천운동, 생명을 살리는 운동, 곧 인권구현의 운동이다. 그 생명운동에 돌봄의 주 제공자인 여성의 사적·사회적 생명도 포함하도록 인식과 관행과 제도를 바꾸자는 것이다.

글을 쓰는데 마치 사관처럼 한국YWCA연합회가 제공한 관련 부서의 회의록을 사초로서 활용하였다. 2002~2006년까지 복지사업위원회 회의록, 2007~2010년까지 복지·부속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2011~2016년까지 돌봄과살림TF, 돌봄과살림위원회 회의록을 주요 분석자료로 하며, 2016~2022년까지의 관련 기록은 YWCA아카이브를 활용하였다.[1)]

Ⅱ. 여성운동 시각에서 본 YWCA 운동

YWCA는 시대의 여성운동과 함께 해왔다. 한때의 청년운동가가 YWCA와 성장하면서 여성지도자가 되어 여성운동을 이끌었다. 그래서 YWCA의 활동기반은 청년성과 기독성에 있다(도임방주, 2022).

YWCA는 참여연대나 경실련처럼 몇 안 되는 종합적인 운동단체이다. '종합적'이라는 의미는 특정 부문 운동에 국한된 목적단체가 아니라 노동, 여성, 통일(평화), 기후(환경), 문화 등 모든 부문에 개입하여 활동력을 드러내는 것을 뜻한다. 다른 시민사회단체들과 달리 Y는 기독교·여성운동 단체라는 점에서 조직 정체성이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운동의 목적과 영역은 이에 관계없이 포괄적이다. 한국 YWCA 목적문에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은 Y운동의 포괄성을 드러낸다.

한국 YWCA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본론에 앞서 고백하자면 필자는 2016년까지의 회의록은 비교적 소상히 정독하였으나 그 이후는 꼼꼼하게 살피지 못했으며 이런 이유로 이 원고는 추후 수정 보완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미완성 글이다. 100년의 역사를 가진 조직을 잠시 거쳐 갔던 이가 논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넋두리할 만큼 부담스럽지만 흥미로운 연구주제라는 유체이탈법으로 멘탈을 붙잡고 정리한 글이다. 평가는 전적으로 연구자 개인의 소견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여성운동의 사상적 배경은 페미니즘이다.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Y의 여성운동은 자유주의 페미니즘과 사민주의 페미니즘에 걸쳐 있다고 보여진다. 자유주의 여성주의가 '기회의 평등'을 강조하고 있다면, 사민주의 여성주의는 젠더 차별 없는 분배의 평등, 결과의 평등을 강조한다.

자유주의 이념에 기반하여 중간계급 이상의 여성의 사회적 각성은 공사를 구분하며 중간계급 여성은 공동체의 일, 빈곤계층 원조 등에 개입하기를 기대해왔다. 중간계급 여성들은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원했지만, 동시에 노동자계급 여성의 가정에 중간계급의 가치를 도입하고자 했다(Simonen, 1990). 마찬가지로 Y도 전통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통한 독립적 주체로서의 사회생활의 기회와 참여를 강조해왔다. 여성 직업훈련과 직업개발, 지도자교육, 실무자 교육은 이런 맥락에서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오랜 역사적 전통에 바탕을 둔다.

부속시설 운영으로 확인된 사회복지서비스 사업은 Y가 모든 현장에서 기독교정신의 실현을 위한 노력의 증거이며, 점차 제도화 틀에 결합하면서 공사영역에서 실질적인 여성 평등을 구현하고자 하는 성과라 할 수 있다. Y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사회적 취약집단(여성, 노인, 청년, 장애인, 결혼이민자 등)에게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을 하며 불평등한 사회의 모순을 완화하고 사회통합을 이끌어내는데 기여하였다. 이것은 모성이자 여성의 역할로 강제되었던 '돌봄'을 사회적 재생산으로 만들고 유지하는 실천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민주의 페미니즘 전통에 입각해 있다.

백소영(2016)[2]은 우리가 받은 두 가지 창조 명령 즉 '생명을 풍성하게 살아내라!'(존재명령) 그리고 '연약한 생명을 살려내라!'(구원명령)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지켜내는 기독교적 소명이 페미니즘과 만난다면, '살고 살리는' 페미니즘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기독교적 교리로 보면 에코페미니즘으로까지 나아갈 듯하다.

Y의 운동 부문 중 여성운동은 홈페이지에서 '여성의 사회참여와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이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운동체'로 소개하고 있다. 이에 따른 주요 활동 방식은 운동의 주체로서 여성과 계몽대상으로서의 여성의 이원화된 방식이었다. 운동의 주체는 고학력 엘리트 여성. Y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상층부 정책결정단위이다. 계몽 대상은 저소득 빈곤계층 여성, 경력단절 여

2) 백소영(2016), "[YWCA 정책교육] 이 시대의 페미니즘을 읽다,"(2016. 6. 16) https://ywca.or.kr/board_edu/5440/

성의 직업훈련 및 취업기회 제공이다. 100년의 역사 속에서 운동방식의 큰 방향은 유지하면서 '더 넓게 더 아래로'로 운동의 대상이 확대되었다. 특히 집합적인 여성노동자에 대한 관심(80년대 노동운동 성장이후 사회운동단체의 역할 변화)보다 개별화되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그것이다. 예를 들면 (비공식부문) 돌봄노동자, 청년여성, 이주여성, 탈북여성에 대한 관심이 그것이다. '청년여성'은 Y운동의 골간이지만 기존의 기독교청년 운동이 하나님나라를 건설할 미래로서 희망과 근원을 나타냈다면, 플랫폼 경제 하에서의 '청년여성'은 세상을 바꾸는 주체에서 가장 취약한 사회집단 중 하나로 경제사회적 지위가 하락한 대상이다.

Ⅲ. 2000년대 이후 YWCA 여성운동 : 돌봄운동 사례 중심으로

Y 여성운동 전체가 돌봄운동이지만 여기에서는 돌봄이 사회의 주요 공론으로 자리매김하는 무렵을 전후하여 좀 더 넓게는 20년동안의 돌봄운동에 국한한다.

2006년 7월 복지사업위원회 회의록에 처음으로 '돌봄노동', '피고용자 권익보장'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돌봄노동에 관한 네트워크 및 교육인증을 위한 시민단체 연대회의(2006. 5. 25). 직전에는 돌봄 정도가, 그 전에는 도우미라는 표현 정도가 등장했다. 36회 전국대회(2006. 8. 22~24)에서 '여성의 인권과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에서 "여성돌봄노동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도록~"이라는 구절이 나온다. 그만큼 '노동'은 Y 운동에서 친화적이지 않은 개념이다.

- 돌봄노동에 관한 네트워크 및 교육 인증을 위한 시민단체 연대회의에서 논의된 주제에 대한 보고에서 피고용자의 권익보장 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하다.

출처: 2006년 7월 복지사업위원회 회의록 중 "돌봄노동에 관한 네트워크 및 교육인증을 위한 시민단체 연대회의(2006. 5. 25)"

	2002-2003	2004-2006	2007-2009	2010-2011	2012-2013	2014-2015	2016~
주제		여성이만드는세상	생명의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생명의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생명의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생명의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생명의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주요 슬로건(?)		건강한 생활공동체 50/50사회 만들기 평화세상이루기	생명사랑공동체운동을 통한 나눔과 섬김의 실천	지역사회 변화시키는 생명사랑공동체	돌봄으로 정의, 나눔으로 평화	돌봄으로 정의, 나눔으로 평화	탈핵으로 생명평화, 성평등으로 정의를
프로그램 정책(2011)→ 운동정책			여성의인권이 존중되는 사회	여성의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	돌봄정의 교육표준	돌봄노동권 확보	돌봄정의운동 지속운동 협력운동(Y정체성 강조, 성인지 강조)
담당조직	복지사업위원회 사회복지사업단	복지사업위원회 사회복지사업단	복지·부속시설운영위원회	복지·부속시설운영위원회→ 운동국 여성운동팀 돌봄과살림TF	운동국 여성운동팀 돌봄과살림TF→ 돌봄과살림위원회	돌봄과살림위원회	돌봄과살림위원회
운동정책/프로그램대상	부속시설 기관장 부속시설 실무자	부속시설 기관장 부속시설 실무자	부속시설 기관장 부속시설 실무자	부속시설 기관장 부속시설 실무자	돌봄노동자 (돌봄회원을 위한 부속시설 기관장 부속시설 실무자 교육)	돌봄노동자 (돌봄회원을 위한 부속시설 기관장 부속시설 실무자 교육)	가사노동자 집중 직업훈련(NCS) 시범Y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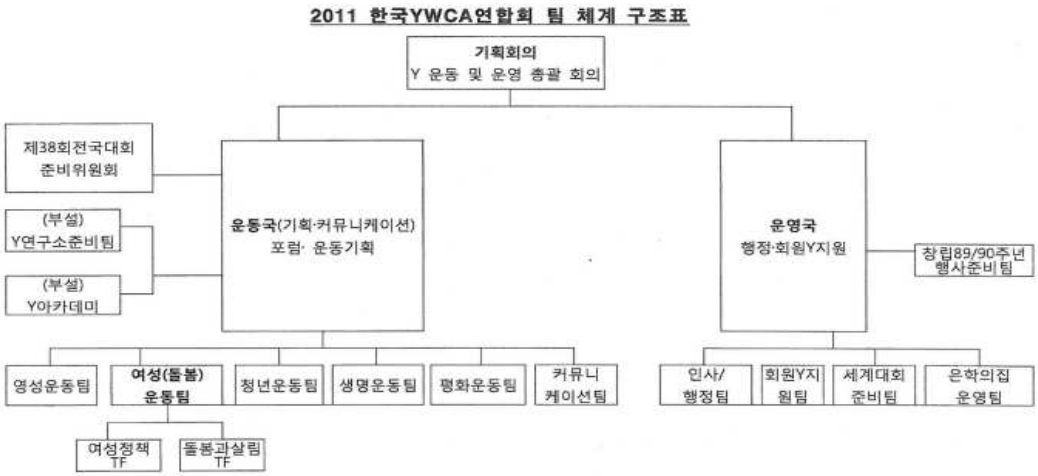
주: 복지사업위원회에서 다룬 부속시설은 은학의집, 어린이집, 복지관, 여성인력개발센터이다. 후에 은학의집은 별도 관리로 업무분리되었다.
출처: 한국YWCA(2015), 돌봄과살림위원회 회의록(경과보고, 2015. 5. 12-2015. 5. 7)

표에서 알 수 있듯이 Y여성운동이 돌봄운동을 통해 여성노동운동으로서 두드러졌던 시기는 2010-2015년까지이다. 2016-2017년은 세부적인 운동정책에서 변화가 있던 시기이다.

Y여성운동에서 노동자성을 강조하는 돌봄운동이 가능했던 것은 몇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 2010-2011년도의 사업방향에서 드러나듯이 중앙과 지역 회원의 일체성을 강조하는 운동적 기조가 강화된 영향이 있다. '회원이 참여하는 YWCA 지역운동 지원'이 그것인데 여기에서 '이사, 위원, 회원이 참여하는 주력운동 전략 수립'이라는 운동의 실천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어서 중앙에서 하방까지 일관된 운동 기조와 실천을 제시하고 있다. '지도'와 '이끄는 대상'으로 접근하던 기존과는 단절점이 형성된 것이다.

또한 이 시기는 운동중점 전개 주기가 3년이던 것을 2년으로 바꾼 첫 해이며, Y100년을 준비하기로 명시한 해이기도 하다.

2011년 3월 돌봄과살림TF 회의록에 따르면 2011년 연합회 팀체계 변경으로 Y 운동국 여성운동팀이 2개의 팀으로 나눠지는데 그 중 하나가 '여성노동권 존중운동팀'이다. 여기에서 여성운동의 하나로 돌봄노동운동, 최저임금, 여성 비정규직 문제를 다룰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것은 기존의 조직체계와 매우 차별화된 구조로의 조직 개편에 해당하는데 Y운동 정체성을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그 안에서 '돌봄운동'을 '여성노동운동'의 기반으로 삼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출처 : 돌봄과살림TF 회의록(2011. 3. 30)

둘째, Y가 2008년부터 사회서비스선도사업 참여를 포함하여, 준비기간까지 포함하면 약 1년 8개월 동안 사회적기업으로 Y 프랜차이즈를 검토하기도 했다. 최종적으로 사업 방향을 접고 '돌봄과 살림' 브랜드만 유지하기로 정리한 것이 Y연합회가 새롭게 지역Y와 연대하는 운동 방향과 실천 전략을 검토하

도록 했다.

2008년 사회서비스선도사업 참여

- 복지부 사회서비스 선도사업(계약일~2009. 6. 30까지-1차년도)

  -> 2008. 8 복지사업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사업수행 장단점과 프로그램(안)검토(128p)

  = 프랜차이즈 사업단 발족(9~10월) 등

  = 공동노무관리 매뉴얼 제작(10-12월) : 가사, 산후관리, 베이비시터 분야별 제작보급

  -> **2008 복지부 사회서비스 선도사업 선정대상에서 제외**

- 복지부 사회서비스 선도사업 추가공모, 선정에 관한 건(2008. 11 회의록, 경과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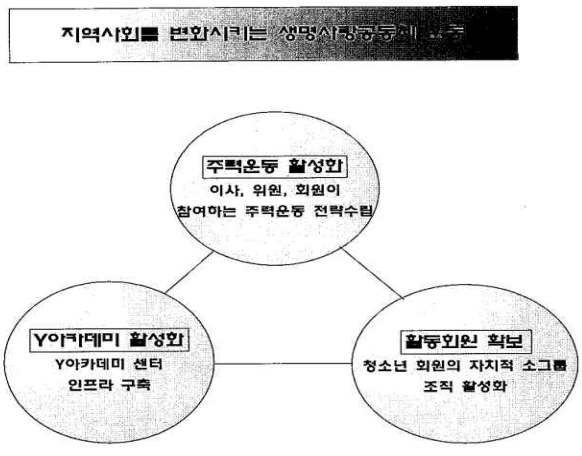
- 사회서비스 선도사업 협약체결(2008. 12 19)

사회서비스 선도사업단 해체 이후 [돌봄과 살림] 브랜드 유지 관리 논의(2010. 10 토의자료)

-> 2008. 11월부터 1년 4개월간 수행 → 프랜차이즈안 폐기, 무료직업소개사업과 돌봄과 살림 브랜드 유지로 정리

*출처 : 한국YWCA 복지사업위원회 해당 시기 회의록, 필자 정리

▷ 2010-2011년도 한국YWCA연합회 사업 목표와 우선과제(안)



출처 : 한국YWCA 복지사업위원회 회의록 중 (2009. 10. 경과보고)

셋째, 다른 돌봄운동단체와 연대활동도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타 돌봄운동단체와의 오랜 연대는 Y 여성운동이 돌봄노동을 통해 기존과 다른 여

성노동운동으로 성장할 수 있는 외부 동력으로 작용했다. 특히 돌봄노동연대회의는 Y 내부평가에서도 "돌봄노동의 노동권 확보를 위한 제 활동이 Y 독자적으로의 활동보다 타 단체와의 연대활동으로 진행(2009년 복지위원회 사업평가 내용)"한다고 되어 있다.

다음으로, 2012-2013년은 '돌봄정의 실현을 위한 돌봄조합 운영모델'을 마련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이 모델은 회원Y의 도우미회원을 돌봄노동자로서 지위를 재명명하고 당사자 조직을 통해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성장하도록 교육하고 조직화하는 모델이다. 돌봄과살림 TFT는 여성운동팀 안의 한시적 단위였음에도 Y회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돌봄노동자의 조직화를 위해 인큐베이팅 역할을 맡았다.

돌봄과살림협동조합 설립은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을 따랐다. △전국 52개 Y의 조직설립 희망여부 파악(현장방문, 설문조사, 지역간 간담회 등), △지역Y 재무, 인력, 사업실태 등 경영진단, △중앙과 현장의 오랜 학습과 숙의 과정을 거쳤다. 최종 결정한 2개 조직을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하고 연합회가 교육(국내외 연수 포함)과 인건비를 지원하였다.

돌봄과 살림 브랜드 확장 및 YWCA型 좋은 돌봄서비스 모델 개발

1차년도(2011)	2차년도(2012)	3차년도(2013)
돌봄과살림 브랜드확장	**YWCA型 모델 연구**	**YWCA型 모델 개발**
▪ YWCA型 좋은 돌봄서비스 모델 연구 - 정책 연구 위한 TFT 구성 - YWCA 돌봄과 살림 생활협동조합 연합 사업 타당성 연구 ▪ 돌봄과 살림 브랜드 유지 : YWCA 돌봄 서비스 체계 정비 - 사업목적의 재정립 - 사업형태에 대한 점검 - 실무능력의 제고-중간 허리 키우기-위한 워크숍 ▪ 유사 비영리기관 간 지역적 협의 강화 - 돌봄연대, 돌봄노동자 사회권 보호를 위한 연대활동 - 일·생활 균형 캠페인단 활동 - 여성노동권 존중기업 발굴 사업	▪ YWCA型 좋은 돌봄서비스 모델 개발 ① YWCA 돌봄과 살림 생활협동조합연합 설립 - 공제사업 연구 및 운영(안) 마련 ② 정책 연구 위한 TFT 활동 강화 -돌봄사업 관련 Pilot Program 운영 및 정책 제안 ▪ 돌봄과 살림 브랜드 확장 : YWCA 돌봄 서비스 체계 정비 - 표준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 돌봄회원 확보, 교육, 파견 - 부가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 자격제도 도입 및 관리 - 돌보미 서비스 개선을 위한 보상체계 마련 ▪ 유사 비영리기관 간 지역적 협의 강화: 여성노동권 존중기업 발굴 등	▪ YWCA型 좋은 돌봄서비스 모델 개발 ① YWCA 돌봄과 살림 생활협동조합연합: 공제사업 실시 및 사업확장 ② 정부와의 파트너십 강화: 정책 연구 위한 TFT 활동 강화-Pilot Program 운영 및 정책 제안 ▪ 돌봄과 살림 브랜드 확장 -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돌봄회원 복지체계 구축 - 부가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 자격제도 도입 및 관리 ▪ 유사 비영리기관 간 지역적 협의 강화 - YWCA개발, 제운영시스템 공유 및 확산 - 돌봄노동의 '괜찮은 일자리' 만들기 운동 전개 등

*출처 : 한국YWCA 돌봄과살림TF 회의록

Y형 좋은 돌봄서비스 모델은 현장의 돌봄노동자를 뿌리로 하여 세우자는 의미가 있었고 2013년까지 3차년도가 1단계, 2단계는 2014-2018년(Y형 모델 유지 및 확정), 3단계는 2019-2023년까지 '21세기 두레공동체 구현'이라는 것으로 JW모델을 구체화하기로 했었다.

최근까지 돌봄노동자 당사자조직이었던 부천Y, 성남Y 돌봄과살림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내부 평가는 안타까운 결말이다. 열정이 식은 현 국면에서 보면 구조적 제약이 매우 공고했고 그 안에 갇힌 채 가능하지 않은 것들을 시도한 것일 수도 있다.

끝으로, 2016-2017년 운동정책 변경의 핵심은 '돌봄노동운동'이 '돌봄정의 운동'으로 추상 수위가 격상되면서 당사자 조직운동에서 사회인식운동, 제도개선으로 바뀌는 것이다. 외부적으로는 대선 정국, 내부적으로는 돌봄협동조합으로의 조직 전환 지연·축소, 가사노동자 합법화 국면 등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주요 실천과제를 보면 Y여성 노동이 오랫동안 해왔던 익숙한 여성노동운동 방식이 재호명되었다. 직업훈련,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강조, 최저임금제와 같이 원칙적, 근본적 운동과제가 부상한 것이 그러하다. 다만 앞서 단절의 시기 이후이므로 과거로 회귀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플랫폼 경제로 인해 노동의 경계 또한 희미해지는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여성노동운동의 의제와 실천의 영역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간과할 우려가 있다.

Y여성운동이 돌봄운동을 통해 돌봄노동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구조적·운동적 배경은 좀 더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운동체로서의 Y 조직개편, △운동방식의 제반 유형별로 검토할 수 있다.

1. 운동체 조직으로서의 변화

2002년 조직 정비가 바탕이 되어 2004년부터 통합적, 전문적 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정책기획 성격을 강화했다. 연합회 본부로 정책결정, 집행을 집중, 효율화하기로 했다. △위원회별 고유과제, 연합회 공동과제 설정 모두 공동 논의, 합의, 수행을 원칙으로 하여 연관성과 일관성, 효율성을 회의 체계에 녹였다. 이는 연합회 조직활동을 중앙과 지역Y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그리고 사회개발위원회를 통해 사회문제, 정책현안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전반적으로 중앙집권적 체제

를 강화하고자 한 측면이 있다.

2. 운동방식의 제 형태

운동방식 유형	구체적 형태	사업, 행사 예시
전국대회	36회/ 37회/ 38회	2006년에 개최된 제36회 전국대회는 구조적인 사회모순을 지적하고,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폐해를 부각했으며, 기존과 다른 기조의 슬로건 등장.
일상 조직화	민들레모임 : 소모임회의(2004~?)	
	돌봄노동자 한마당	-초기 : 일반회원 관련 한마당 개최 -2005. 8월 간병사 한마당대회 -Y 생명도우미 대회 개최(2007.8.25.) -2010 돌봄과 살림 돌보미 비전 축제 (2010. 6. 12)
	연구 모임	부속시설 실무자 모임 부속시설 기관장 모임
사회인식개선을 위한 담론 조성 및 확산 운동	돌봄 사회화, 돌봄 공공성 돌봄의 가치 돌봄노동자의 사회적 인정과 보호	육아Day 캠페인 GIVING EXPO 참가 기관지 발간 YWCA 정책포럼/돌봄포럼 프로젝트 사업 참여 : 2005년↗
당사자 인식 개선 및 이해 대변	-지도자 및 실무자 교육과 연수 -좌담회 -YWCA 정책포럼/돌봄포럼 -YWCA정책교육(2020.6~)	-돌봄실천 현장의 소리 (2014.10.28.)
Y정책 및 실천운동 + 제도개선 운동	-어린이집 주간식 유기농화 -기초실태조사 -지도자 발굴,육성 + 실무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Y전문직종 자격증제 추진 -YWCA 돌봄지표 개발돌봄노동자 법적 보호 운동	-복지관 종사자 실태조사 -Y 도우미회원업무실태조사 -Y돌봄서비스 실태조사(2008. 3 7-5. 31)가사관리자법 입법운동
돌봄사업	-복지사업위원회 부속시설 운영관리 사업 -Y돌봄노동 회원의 노동권	-은학의집, 어린이집, 복지관, 여성인력개발센터 -Y사업의 사회적기업화 추진

	확보 지원(Y고유의 사회적 기업 발굴 및 돌봄노동 관련 사회적기업 지원을 통해)	(2007년) -2008년 사회서비스선도사업
외부연대활동	-시민사회단체 연대 -정부 부처 정책 협의 및 회의참여 -토론회, 간담회, 자문회의 참여	-사회적기업·사회적경제 관련 회의(2004~) -돌봄노동 네트워크 회의(2006~) -여가부, 노동부, 복지부
주 : 각 시기 회의록 참조하여 필자 구성 출처 : 한국YWCA 복지사업위원회, 돌봄과살림위원회 등 회의록		

Ⅳ. 여성운동으로서의 돌봄운동에 대한 조심스러운 평가

첫째, 권리를 침해받은 여성노동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적 관점을 넘어서서 '돌봄'을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성평등한 미래 사회의 규범'으로서 제시하는데 일조했다. "모두를 위한 정의와 사회복지 서비스모델(JW 모델)[3]" 구현을 위한 중기적 운동정책과 실천이 그것이다.

둘째, 돌봄노동자의 노동기본권 구현을 위한 인정 투쟁을 하면서 여성노동운동으로 들어섰다. 정확하게는 YWCA 여성운동은 돌봄활동을 통해 여성노동운동으로서의 운동 주체임을 분명하게 다시 확인했다.

80년대~90년대를 거치면서 '노동운동'은 Y의 운동 내에서 이론적으로나 규범적으로 위상이 높지 않았다. 노동조합과 노동단체에서 보편적으로 활용했던 운동방식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이른바 '과격한' 운동방식들과는 거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Y의 오랜 역사에서 전개된 여성의 주체성 회복 운동 중 여성노동운동이 아니었던 활동이 드물다는 것도 주목할 사실이다. 취업은 여성이 독립된 주체로 성장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의 획득(차경애, 2014)이라는 Y의 본원적 운동 원칙도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기회의 평등을 대변하는 개념이지만, Y 100년이라는 역사적 시간과 '비동시성의 동시성'으로서 격동의 땅이라는 지리적 공간에서는 계급적·도구적 시각을 넘어서는 의미로 봐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Y의 활동을 사회이론의 스펙트럼으로 규정해 보면, 돌봄노동

3) 은수미(2011), [한국 YWCA 돌봄사업], 한국노동연구원

자를 위한 사회적 보호 요구는 기회의 평등(자유주의적 페미니즘)에서 결과·분배의 평등(사민주의적 페미니즘)을 발판으로 노동인권으로 나아가는 운동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돌봄노동자를 교육하고 대외적으로 연대하며 입법운동을 주도했던 일련의 집합적 행위는 Y의 여성운동이 여성노동운동으로의 정체성을 안팎으로 재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노동운동의 경계를 확장하는 데 기여했다. 구체적으로 노동운동의 주체와 노동자를 대변하는 다양한 조직적 형태의 필요성, 유의미성에 주목하게 했다.
운동의 대상이었던 돌봄노동자(가사관리사, 간병, 산후관리사)를 위해 Y는 '직업으로서의 인정',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을 요구해왔다. '대기업-정규직-남성중심-조직노동'으로 비판받았던 기존의 조직노동운동이 주목하지 않았던 '중장년여성-비공식노동' 일자리를 직업으로서 인정받기를 요구하는 운동은 제도화된 노동운동에서 배제되어 있던 노동자를 제도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요구할 수 있게끔 '운동 주체로서 가시화'했다는 점에서 노동운동의 경계를 확장하는 데 기여했다. 가사관리사는 '가사근로자고용개선법'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제공기관의 노동자'가 되는 길을 열었다. 간병사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요양보호사를, 산후관리사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가 불완전하게나마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는데 기여했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 이해대변 조직으로서 당사자협회, 당사자 협동조합의 결성은 그 자체로서도 돌봄노동자의 주류 노동운동 진입에 영향을 끼쳤으며 나아가 노동조합으로의 물꼬를 트는데도 기여했다.
대표적으로 가사근로자법 통과를 환영하는 성명서(['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을 환영하며-'이제 우리는 당당한 가사노동자로 일어선다!'], 2021. 5. 21)에는 한국YWCA연합회와 산하 52개 지역YWCA, 한국가사노동자협회와 15개 회원단체, 한국여성노동자회와 11개 회원단체, 전국가정관리사협회와 8개 회원단체 외에 연대지지 단체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협동조합협의회가 적시되었다. 결과적으로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이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보호의 권리, 당사자의 권리 요구가 정당화되는 사회권에 바탕한 인권으로서의 개념으로 진일보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넷째, 돌봄노동자 주체화 운동은 Y에게 다양한 운동방식과 운동의 결실을 경험하는 장(field)을 제공했다. 이러한 경험은 Y가 수십 개의 사회복지 부속

시설의 운영관리 및 제도화 노력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동자로서의 인정' 투쟁은 노동자와 그의 노동가치를 존중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노동기본권의 본질적인 부분이지만 Y의 회원인 돌봄노동자에 대해서는 Y의 여성운동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방향이다.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시장에 맞는 노동력'으로 훈련시키고 보증하는 데 역할과 소임을 집중했기 때문이다. 그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제도적으로 보호받는 일자리)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Y 돌봄회원의 노동기본권 실현 운동(직업인정과 사회적 보호)은 Y 여성운동이 공론화 투쟁의 제한적 운동방식에 머물렀던 전형을 벗어나 '당사자 조직화', '입법화 운동', '타 노동사회단체 및 노동조합과 연석회의', '공동집회와 토론회 참석' 등으로 제도적 안착 과정과 '제도화 이후의 사각지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운동방식을 경험하도록 했다.

한계로 지적할 수 있는 점은 Y연합회나 지역Y 조직도에서 '노동기본권'을 검토하고 사업화하는 부서나 팀은 '운동팀-돌봄과살림 TFT'가 유일했다는 점이다. 돌봄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부서나 팀이 조직도에 드러나지 않는다.

부속시설 실무자와 도우미회원은 Y의 위계적인 관계구조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다. 특히 Y의 임원과 대표선출, 정책결정과정에서 도우미회원들의 역할은 '소비자', '고객', '정책집행 대상자'로서 그려지고 있다. 즉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내부 단위가 부재하다.

협동조합 설립은 노동자가 주체가 되는 자발적 이해대변 조직을 기대했으나 지역Y의 여러 사업 중 하나가 변하는 것이라 근본적인 한계가 내재되어 있었다. 또한 Y가 운동단체이지만 노동자의 직접적 이해대변 기구인 자주적·민주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Y의 도우미 회원을 돌봄노동자 주체로 세우는 데 조직의 축적된 운동역량과 자원이 맞지 않았고 그것이 제약이 되었다. 돌봄 수혜자이자 공급자로서 여성의 개인적 경험을 자신이 주체인 사회적 맥락의 통제들과 결합하는 것(Aronson, 1990)이 필요하다.

조직적 딜레마를 극복하고 운동의 대상을 운동의 주체로 키우기 위한 역량강화 노력을 했으나 현실 장벽에서 분전하였고, 이는 지역Y의 정체성 위기를 변화시키지 못했다. 돌봄운동이 정체성 인정, 경제적 지위 인정을 호소하는

것을 넘어 돌봄노동자의 노동법 규제 하에서의 실질적인 보호로 나아가는 데 있어 Y는 노동기본권 보호 원칙에는 공감하고 동의하지만 지역Y가 처해 있는 실상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조직적·인식론적 갈등에 처하게 되었다. 비영리 운동조직이 '고용주'가 되어 불법과 편법을 범한다는 것은 수용하기 어려웠지만 직면한 현실이었다.

돌봄노동자를 운동의 주체로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은 장기 과제로 이루어졌다. 2006-2018년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이라는 표어 하에 실천하였던 생명사랑공동체운동에서 운동의 주체로서 '여성'이 강조되고(곽지영, 2022) 있지만, 여성노동자의 당사자 운동체로서의 위상은 더 발전되고 있지 않아 보인다.

돌봄노동자는 '회원'이지만 협동조합 전환을 고민했던 지역 Y정도에서 Y 여성운동 활동가로서의 교육적 접근을 했을 뿐 돌봄노동자를 Y 운동의 장년, 노년 활동가로서 인식하지 않았다. 이는 Y 지역여성운동 평가에서 확인된다.

> "여성주의/성평등운동으로서 여성폭력반대운동이나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일자리 개발, 직업훈련을 위한 활동들도 엄밀히 지역사회 여성의 삶을 변화시키는 여성주의운동이라 할 수 있으나, 거버넌스 형태의 정부위탁시설 사업인 경우, 회원YWCA의 운동적 주도성 혹은 주체적 활동이 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이 범주 안의 활동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다(곽지영, 2022: 71)."

노동운동이 가시적 성과를 내려면 눈에 띄는 전략과 전술을 선택해야 한다. 노동운동의 핵심은 당사자의 의식화를 통한 조직화이다. 조직화는 대체로 제도권 안에서의 노동기본권 보호로 드러난다. 돌봄은 또 다른 차원에서 긴 호흡을 요구한다. 그런 의미에서 장기적으로 설계되었던 운동정책은 Y의 운동방식과 맞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끝으로 YWCA 돌봄운동이 가져온 사회변화를 짚어보면서 Y의 운동의 영향력을 평가해 볼 수 있다.

첫째, 노동운동과 사회정책 주류의 사각지대(아동, 노인돌봄 등 여성적 의제)에 있던 '돌봄'을 '여성적 의제가 곧 사회불평등 폐지의 핵심 의제'가 되도록 위상 제고에 기여했다.

둘째, 노동운동, 사회운동단체로 양분되어 있던 운동 진영에 제3섹터 조직 확대에 기여하고 계기를 만들었다. △돌봄(과 살림) 브랜드 제작, △협동조합

설립 등 다양한 조직 전환 실험, △타 노동사회운동 단체와 연대활동이 그것이다. 특히 여성단체를 포함 타 노동사회운동 단체와 입법 및 정책개혁 연대활동을 지속적으로 결속력 있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도 '돌봄'을 운동적 차원에서 주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셋째, 돌봄이 미래사회의 바람직한 규범인 사회정의로 자리매김하도록, 공공성 강화 의제가 주류 담론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돌봄의 시장화를 지연시키는 데 많은 역할을 했다. 예를 들면, 사회적기업 전환과 프랜차이즈화가 Y의 운동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내부 비판,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이 사회공헌활동 목적으로 지원·협업을 요청할 때 Y의 정신에 부합하는지 검토해봐야 한다는 견제의 지적들이 회의록에 등장하고 있다. 이는 Y가 비영리 운동단체로서의 정체성을 구체적인 사업에서 끊임없이 고민해왔던 단면이며 그것이 돌봄의 공공성을 지켜내고자 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넷째, 돌봄노동권 확보, 돌봄 정의 운동은 근로여성의 보호,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할 권리와 직장 내 노동생존권 보호를 넘어서서 젠더운동이 곧 민주주의 운동이며 인류 공동체 생존 운동임을 보여주고 있다.

Ⅴ. 100년 이후의 Y의 여성노동운동으로서의 돌봄운동

한국YWCA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재하기 위해 지금 현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도임방주, 2022: 64).

- 기독교 안에서 모든 차별과 혐오를 배척하면서 남성 가부장적, 권위적 조직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단체
- Y의 여성운동이 지역 돌봄노동자가 주체로 활동하는 장으로서, 기댈 언덕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청년, 중장년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육성
- 기독신앙보다 기독교 정신에 바탕한 활동(도임방주, 2022: 58)

참고문헌

도임방주(2022), "한국기독학생운동과 YWCA 기독여성운동", [한국YWCA 창립100주년 기념 YWCA 역사포럼: 한국YWCA 기독여성운동의 기억과 전망], 한국YWCA연합회.

차경애(2014), "한국YWCA 돌봄직업훈련의 역사", [여세] 2호, pp.132-139.

최만자(2014), "세월호 시대, 성서적 돌봄윤리의 절박한 요청", [여세] 2호, pp.21-32.

곽지영(2022), "지역청년운동으로서의 YWCA 지역여성운동", [한국YWCA 창립100주년 기념 YWCA 역사포럼: 한국YWCA 기독여성운동의 기억과 전망], 한국YWCA연합회.

Jane Aronson, 1990, "Women's Perspectives on Informal Care of The Elderly : Public Ideology and personal experience of giving and receiving care, Ageing and Society, Vol. 10(1), pp.61-84.

Leila Simonen, 1990, "The Politics of Caring : The case of municipal homemaking in Finland, L. Jamieson & H. Corr (eds). Private Life and Political Change, St. Martin's Press, pp.119-133.

장은주. 2006. 사회권의 이념과 인권의 정치. 사회와 철학 연구회 논문집(사회와 철학), 제12호. pp.187~216.

발제 4

사회서비스로서의 YWCA 돌봄운동

곽 지 영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Ⅰ. 돌봄운동으로서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의

YWCA 돌봄운동은 YWCA 초기 기독교사회운동(여성 인권, 생활개혁, 의식계몽)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주체 형성(돌봄 회원), 법·제도(가사노동자법) 개선활동, 사회적 인식 개선(가사노동 및 가사노동자에 대한 인식) 활동,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YWCA 직업훈련(파출부 교육) 및 지역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다양한 YWCA 활동이 제도화되어진 어린이집과 여성인력개발센터 등과 사회복지관련 위탁 시설 등을 포함하여 광범위하다.

돌봄운동 중 사회서비스의 영역을 구분해 내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란 무엇인가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1]에 정리되어진 사회서비스의 개념을 살펴보면, 광의로는 "사회서비스는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 문화, 주거, 고용, 환경 등을 폭넓게 포함한다"로, 협의로는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돌봄서비스를 총칭한다"로 정의되어 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2]에서는 사회서비스를 "일반적인 의미에서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하며 공공행정(일반행정, 환경, 안전), 사회복지(보육, 아동,장애인,노인 보호), 보건의료(간병, 간호), 교육(방과 후 활동, 특수교육), 문화(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 운영)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되어 있다.

YWCA 내에서는 돌봄운동 중 사회서비스 영역을 1999년 4월 3일 제정된 『YWCA 부속시설 운영지침』에서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제로부터 운영주체 단체로 지정받은 복지관, 어린이집, 상담실, 수련실, 일하는 여성의 집 등을 부

1)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60101&)
2) (https://www.socialservice.or.kr:444/)

속시설로 정의하여, 관리하고 있다. 부속시설의 기준으로 (본부와 같은 건물일지라도) 별도의 사무실 운영, (부속시설 업무만을 전담하는) 별도의 직원 배치와 (본부 회계와 분리된) 별도의 예산 운용 등의 3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1980년대 회원 YWCA가 16개 창립되고 1990년대 12개, 2000년대 4개 창립이 되는 등 전국적인 회원 YWCA의 양적 확대로 인해 정부의 시설위탁이 급증되면서 1990년대 YWCA 복지사업단이 설치되어 부속시설을 관리하기 시작한 바 있다.

이러한 YWCA의 부속시설에는 YWCA가 시작한 활동을 정부가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설립한 유형인 어린이집과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이 포함되어 있다. 탁아소 운동에서 시작한 어린이집은 빠른 속도로 공공영역으로 편입되어, 기독교 교육에 기초한 민간 영역의 어린이 교육사업으로 이어져왔고,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위치와 역사적 의미는 부속시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본질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주요한 활동이 되어 왔다. 두 번째, 법제정등 제도마련 후 정부가 시설 설치를 주도하여 YWCA가 참여한 유형인 성폭력피해자 시설이나, 건강가족지원센터, 장애인시설, 자활 및 복지관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사회서비스로서의 YWCA 돌봄운동은 YWCA가 운영해온 부속시설을 기준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사회서비스의 제도화(부속시설화)를 통한 확장기(2000-2019)

1. YWCA 운동의 제도화로서의 부속시설의 의미

YWCA는 1947년 부산에서 무의탁 소녀들에게 농업, 원예, 축산, 가내수공업 기술을 가르치고, 전쟁 미망인들에게 양재, 편물 기술을 전수했던 것을 시작으로 노동시장 내에서 일하는 여성으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한 여성직업훈련을 시작했다. 이후 1992년 노동부의 연구과제 "단기직종의 여성직업훈련 실시방안" 수행 이후 1993년 '일하는 여성의 집'으로 명명한 여성직업훈련기관이 한국YWCA연합회가 정부의 사업비 일부를 보조받는 사업주체 서울, 부산, 광주에 설립하게 되었다. 2001년 '일하는 여성의 집'을 '여성인력개발센터'로 명칭을 개칭하게 되었다. 경력단절 여성, 즉 기존 노동시장에서 사각지대에 속하는 전업주부, 중·고령층 여성, 여성가장, 차상위계층 여성 등을 포함한 일반 성인여성이 처음 가정의 울타리에서 나와 경제활동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곳으로 기초적인 직업훈련을 받고 심화된 전문직업훈련으로 가는

중간 다리의 역할을 하는 직업훈련을 포함한 대한민국 유일한 여성 취업지원 전문기관인 여성인력개발센터로 이어진 것이 YWCA 사업이 제도화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지역공동체의 회복, 국가균형 발전과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슬로건으로 한 1991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역은 구체적인 생활정치의 실현의 장으로 바뀌었다. 이에 전국 52개 지역에 기반을 두고 지역여성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온 YWCA도 지역여성을 조직화해야 하는 주체로서의 변화를 요구받게 되었다. 지역사회 내의 신뢰성 있는 여성운동 조직이라는 YWCA에 대한 인식은, 정부의 위탁사업을 수행하기에 최적의 기관으로 인식되어지면서, 위탁사업을 기반으로 한 회원YWCA의 양적 증가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 안정된 재원을 확보하면서 여성의 삶과 직결된 대중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고, 회원 저변이 확대되는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를 위해 아무도 제공하지 않았던 돌봄의 주체로서 역할을 담당해왔던 YWCA의 많은 프로그램들이 정부의 위탁사업으로 제도화되어 가면서, 돌봄의 주체의 정체성보다 위탁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의 정체성이 강화되어 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제도화된 부속시설은 다양한 지역의 욕구에 대응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며 Y의 목적과 사명을 지역사회에 바로 뿌리내릴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부속시설이 Y의 정체성을 기본적으로 실현하면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본부와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관리체계를 지켜나가고, Y부속시설 간 네트워크와 연구모임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방침에 적절히 대응하고 선진 정보를 공유해나가는 것을 과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1987년 고용평등법 통과 이후 시행된 시범직장탁아소 10개 중 6개를 YWCA가 설립하여 직장탁아의 모델을 창출하였고, 여성의 직업능력개발과 취업확대를 위해 일하는 여성의집(현 여성인력개발센터) 사업을 개발하여 여성직업개발이라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으나 YWCA 활동이 '사적 영역, 생활 영역'의 이슈들을 '정치화'해내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최만자, 2017).

2. 질적인 부속시설 운영을 위한 YWCA의 노력

2000년 이후 양적인 성장을 해온 YWCA의 부속시설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질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그 노력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99년 4월 3일『YWCA 부속시설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지속적으로 개정하면서 실제적으로 YWCA 목적문에 적합하게 부속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둘째, YWCA연합회 내에서 복지사업위원회에서 담당하던 부속시설의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0년부터 복지법인 설립을 준비한 후, 2002년 5월 사회복지법인 YWCA복지사업단을 설립하여, 서울, 경기, 부산, 울산 지역에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지역자활센터, 종합사회복지관,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을 위해 노력해 왔다.

셋째, 제 35회 YWCA 전국대회(2003)에서 다음과 같은 <부속시설정책 결의문>을 채택하여, 부속시설의 질적인 운영을 결단하기도 하였다(2003년 5월 복지사업위원회 회의록).

<부속시설 결의문>
1. YWCA 부속시설은 각 분야의 전문사업을 통해서 YWCA 운동을 전개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부속시설은 각 분야의 전문사업을 YWCA 정체성을 바탕으로 실시한다.
1. YWCA 운동중점사업을 각 부속시설 사업 특성에 맞게 전개한다.
1. 부속시설을 운영하는 회원 YWCA 는 각 분야의 전문사업을 지원하며, 각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1. 회원 YWCA는 전문인력 및 재정지원이 가능한 경우에만 부속시설을 운영한다.

넷째, 주요 부속시설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2001년 사회복지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회복지관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등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였고, 2002년 여성부의 '여성인력개발센터 실태조사'에 따라 YWCA의 대응책을 마련하기도 하였고, 2003년 어린이집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어린이집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다섯째, 부속시설의 현황을 공유하고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모임을 만들고 정기적으로 운영함으로써, YWCA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부속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YWCA 복지관장 연구모임, YWCA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모임, YWCA어린이집 원장 연구모임과 YWCA 상담소장 연구모임 등 부속시설 대표자들의 모임을 정기적으로 운영해왔다. 또한 해당 부속시설 실무자 교육(어린이집 교

사 연수, 복지관 직원 연찬회 등), 부속시설별 실무자 연수(모임, 교육), 중견실무자(실무 연차별) 모임구성 및 활동 등을 통해 부속시설에서 YWCA 정체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여섯째, 위탁시설인 부속시설을 늘리는 데 주력할 것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Y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에 치중하자는 안과 지역 요구에 따른 다양한 부속시설 증가가 Y의 정체성일 수도 있고, Y도 변화추세에 부응하려면 다양한 부속시설의 증가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안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부속시설에 대한 운영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2005년 2월 복지사업위원회 회의록)

3. 부속시설의 양적 확대

『YWCA 부속시설 중장기 계획 및 YWCA 부속시설 新 운영정책 연구』(2019)에 따르면, YWCA의 부속시설은 1952년 광주 성빈여사 설립으로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1990년 이전에 5개 회원 YWCA에서 7개소의 부속시설[3]을 운영하기 시작한 것이, 1994년에는 19개 회원 YWCA에서 39개소의 부속시설을 운영해 왔다. 한국YWCA의 부속시설 관리가 시작된 2005년에는 137개소, 2017년 194개소, 2019년 2월 28일 현재에는 부속시설이 264개소로 확대되었다.

2017년 연간보고서에 있는 자료를 보면, 현재 YWCA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수는 194곳으로, 한 Y당 3.7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비스 영역은 어린이부터 다문화까지 영역과 범위도 다양하다(곽지영, 2018). 2019년 부속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YWCA 부속시설(위탁사업 포함)은 2019년 2월 말 현재 전국 50개 지역 회원YWCA 본부에서 총 264개의 부속시설(위탁사업 포함)을 운영 중이다. 한국 YWCA에서 운영되는 부속시설에는 여러 종류의 시설들이 다양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유사한 특징을 지닌 시설들을 같은 종류로 분류해보면, 운영형태는 21종에 이른다. 운영형태별로 보면, <여성회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38개소로 가장 많고 이는 전체 부속시설의 14.3%이다. 두 번째로 많은 것은 여성 상담시설인 <가정폭력상담소와 쉼터>, <성폭력상담소와 쉼터>로 37개소, 전체의 14%이다. 그 다음으로는 27개소인 <여성인력개발센터>(10.2%), <청소년시설>이 26개소(9.8%), 어린이 집 22개소(8.3%), 12개소인 복지관(4.5%) 순이었다.

『YWCA지역여성운동연구』(2018)에 따르면, YWCA 전체 실무활동가 총

3) 광주Y의 성빈여사(1952년), 신용협동조합(1973년), 서울Y의 봉천복지관(1970년), 성동청소년문화의집(1988년), 인천 Y의 어린이집(1988년), 춘천 Y의 강원학사(1989년), 성남 Y의 어린이집(1989년)

2,369명에서 본부 실무활동가는 391명, 부속시설 실무활동가는 1,978명으로 2:8 정도로 부속시설 실무활동가가 월등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위탁시설이 늘어나면서 부속시설 실무활동가도 증가하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으나, 1994년 전체 실무활동가 709명 중 사회복지사가 46명(6.49%)에 불과했던 것이 2017년에 83%로 확대된 것이 YWCA의 운동 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민할 지점을 드러내고 있다.

4. YWCA 부속시설의 시설운영 확대의 의미

『YWCA 부속시설 중장기 계획 및 YWCA 부속시설 新 운영정책 연구』(2019)에서는 YWCA의 시설 운영의 확대를 역사적인 맥락에서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1) 한국YWCA의 목적에 맞는 시설을 운영한 것

- YWCA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26개의 청소년시설은 사회적 혼란과 불안 가운데 방황하는 청년들에게 현실을 바르게 인식하고 미래사회를 전망할 수 있는 안목과 자질을 갖추게 하는 주체로서의 '청년운동'의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 위탁받아 운영하였다.
- 독립된 존재로서의 여성의 자아의식을 고취하며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여성의 지위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책임을 다하는 주체임을 의미하는 '여성운동'의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 여성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정폭력상담소와 쉼터, 성폭력상담소와 쉼터, 여성 직업 능력개발을 위한 여성회관,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을 위탁받아 운영하였고, 이외 근로 여성을 위한 직장탁아소 및 기혼여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시설 등을 위탁받아 운영하였다. '일하는 여성의 집'으로 시작된 현재의 여성인력개발센터는 한국 YWCA가 필요성과 사업 형태를 제안해서 시작된 것으로, 한국YWCA가 40여 년간 지속해 온 YWCA의 직업교육의 전문화를 바탕으로 민간 영역의 활동을 정부 지원으로 확대, 제도화시킨 사례이다. 2019년 현재 전국에서 50여 개가 운영 중인데 절반이 넘는 27개의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 중인 한국 YWCA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었다. 정부의 지정사업으로 시작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와 운영이 노동부, 여성부,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정부 정책과 시민사회단체 간의 상호 견제와 협력의 장치를 마련하기도 했다.
- 소외된 이웃과 비인간화되어가는 사회현상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YWCA가 수행하는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사회변화·개혁으로 심화

시키는 주체라는 목적인 '기독교 운동'을 실현하기 위해, YWCA는 정부 위탁사업인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게 되었다. 이러한 위탁사업의 증가는 1990년대들어 YWCA뿐만 아니라 많은 운동 조직에게 주어진 책임이면서 사업 확장의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위탁사업의 증가는 정부 지원 사업의 '위탁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처의 성격과 위상에 따라 내용과 형식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

2) 정부정책과 제도변화의 기여로 확대된 회원YWCA의 부속시설 위탁 확대

- 한국의 사회복지시설은 1970년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시설 설립과 위탁을 근거로 하여 70년대부터 시설위탁이 공식화되고 19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화되면서 사회복지시설이 최근까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을 시작으로 각종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이나 정책들이 만들어질 때마다 항상 여성,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의 복지대상자들을 지원하고 보호할 시설들의 확충 역시 동시에 급격하게 일어난다.
-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시행 이후 운영되고있는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 부속시설의 개소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지방자치제가 한국YWCA의 부속시설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된다.

3) 지방자치제 시대 이후 민-관협력 인프라 구축

- 1995년 지방자치제시대 이후, 각 지방자치 정부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러가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시설들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그러나 복지서비스를 공공영역에서 제공하기에는 인프라를 미처 구축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미 민간 영역에서 설립, 운영 중이던 복지시설들을 운영, 지원하게 되었고, 그 후로도 민관 협력을 강화하면서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 부속시설의 개소수가 증가하게 되었다.

5. YWCA 부속시설의 양적 확대 이후의 문제점

2014년~2018년까지 회원YWCA 본부와 부속시설 관련 현황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회원YWCA 본부

첫째, 증가하는 부속시설의 운영 주체로서의 부속시설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시민운동체로서의 목적이 약화되었다.

둘째, 요구되는 전문성이 다른 부속시설의 특성상 본부와의 협력관계가 약해지고, 부속시설 별의 협력관계에도 어려움이 나타났다.

셋째, 부속시설과 본부와의 재정 조달 방식의 차이로 인해 급여 차이 발생으로 인한 갈등이 나타났다.

2) 부속시설

첫째, 부속시설의 활동가의 경우 부속시설의 직원으로 입사 후 YWCA 목적 등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되므로서, YWCA 정체성 및 소속의식이 약하다는 문제가 드러났다.

둘째, 근로기준법이 강화되고, 부속시설 활동가의 노동자성이 드러나면서 근로기준법 위반 요소(근로조건, 균등처우, 性,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등) 에 대한 내부고발 사례가 증가하였다.

셋째, 본부와 부속시설 간의 인사이동시 경력산정 및 임금 보전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넷째, 부속시설 활동가들에게 요구되는 YWCA 행사 참여 및 목적 운동 참여에 대한 갈등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Ⅲ. 사회적 요구에 발맞춘 YWCA 부속시설 구조 변화 노력(2019-2023)

1. <2019 보건복지부 법인 · 시설관리 안내지침> 개정으로 법인의 책무성 강화에 대한 요구

법인의 책무성 관련 정부 정책의 강화에 따라 많은 부속시설을 위탁받고 있는 YWCA는 사회적 요구에 발맞춘 구조적인 변화를 요구받게 된다. 그 요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전체

① 법인의 책무성 강화에 대한 요구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규제 강화로 법인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 위탁 기간이 길었던 법인에 대한 견제
- 법인의 목적을 나타내는 로고 및 법인명 사용에 대한 규제 강화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18년 8월 사회복지사업법 전담 수사팀 출범

- 복지부의 복지시설 관리운영 위법행위 적발 강화(2018.7.8~7.13. 복지부가 지자체와 사회보장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특별합동조사 진행(76건 적발, 182건행정조치 요구)
-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사업 2017년 시범적으로 추진, 연차별 확대 시행 예정
-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관련, 복지관까지를 포함하여 적극적인 운영계획 추진
- 복지관 주요 사업(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 조직화)에 YWCA 중점운동 접목의 현실적 어려움 증가
- 법인행사, 회원모집, 종교 행위 등에 관한 내부고발사례 증가 및 지역노조가입을 통해 문제 제기 발생 위험성 증가

② 주요 긴급 과제

- 2019년 12월까지 사회복지시설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각 시설별 별도 발급해야 함. 사회복지시설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포함)상 명의는 반드시 해당 시설의 설치신고증(인가증, 허가중)에 표시된 명의와 동일해야 함. 시설 설치신고증 명의와 사업자등록증 명의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 지양(2019년 12월까지는 경과 기간, 2020년 1월부터 의무 적용)
- 2020년 12월까지 종사자 채용 시, 시설장을 포함하여 모든 종사자는 사회복지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법인대표자 명의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함
- 직접고용을 맺지 않은 종사자에 대해서는 인건비 보조금 교부 지양(2020년 12월까지는 경과 기간, 2021년 1월부터 의무 적용)
- 연합회 중앙법인이 전국 시설종사자 직접 근로계약 체결 시 거대 중앙법인으로서의 운영 문제(사회보험요율 인상, 장애인 고용부담 가중 등)

2) 여성인력개발센터

① YWCA 운영현황

- 전국 25개 회원YWCA, 27개 센터 운영 중(22개 법인, 53개 여성인력개발센터)

② 운영상 문제점

- 정부 지원 운영비 대부분은 프로그램개발, 인력관리, 시설관리비로 충당 중이어서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어려워, 초창기의 유료과정을 활성화하거나 각종 지원 사업에 의존하는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
- 제도화 이후 정부평가 기준에 맞춘 실적위주의 사업 진행으로, 여성의 생애주기별 체계적인 직업훈련체계와 서비스 구축이 어려워지면서, 민간여성단체로서의 고유성과 차별성 부재
- 건물 임차에 따른 시설의 노후 및 임대료 증가 및 시설 노후화의 문제로 인한 공간적 불안전성
-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인한 종사자의 잦은 이직과 전문성 결여

3) 청소년시설

① YWCA 운영현황: 전국 14개 회원YWCA, 26개 시설 운영 중

② 운영상 문제점

- 시설별 임금 격차 심화 : 지자체마다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임금 기준이 다름. 최근 여성가족부가 제6차 청소년 기본정책을 수립하면서 청소년지도사 임금체계를 사회복지사보다는 높게 책정했는데, 각 시설들이 지자체 조례를 따르는 곳과 여성가족부 기준을 따르는 곳이 달라 시설별 임금 격차는 더욱 커지며, YWCA 본부와의 격차가 큼. 본부 활동가의 근무 불안정성이 발생
- 지자체 보조금 중 인건비 지원 부족 : 지자체가 보조금을 인건비의 80~90% 정도만 지원하여, 인건비 충당 등 운영상 현실적 어려움 있음

4) 여성상담시설(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쉼터)

① YWCA 운영현황 26개 회원 YWCA 37개 시설 운영 중
(가정폭력상담소, 쉼터: 23개/성폭력상담소, 쉼터: 14개)

② 운영상 문제점

- 전국 최하위 보조금 지원: 전국 사회복지시설 중 보조금 지급수준이 가장 하위로 열악함
(예산 : 가정폭력상담소는 여성가족부 예산, 성폭력상담소는 법무부 피해자기금에서 지급)
- 부족한 인건비 :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라고 하나. 지원 예산은 절대 부족한 실정. YWCA 본부와의 격차가 큼. 본부 활동가의 근무 불안정성이 발생

- 부속시설에 대한 본부의 지원이 부족

2. YWCA 특별조사(YWCA 부속시설 실태조사) 실시(2019년)

1) 목적

① 회원YWCA : 본부 정상화(시설 운영 주체로서의 책무성 강화YWCA 지역 운동성 강화)

- 부속시설 운영 주체로서의 책무성 및 본부 관리역량 강화
- 시민운동체로서 회원YWCA의 지역운동성 확보

② 부속시설: 시설 운영과 프로그램의 공공성, 책무성, 투명성 강화

- YWCA 목적과 시설의 설립 목적에 기반을 둔 시설 운영
  - 부속시설의 전문화된 다양한 서비스 제공역량 강화
  - 본부와의 협력 관계 구축

③ 연합회 : 설치·운영 및 지원 주체로서 법인의 책무성 실현

2) 목표

① 장기 목표

- 회원YWCA 본부 관리역량 강화 및 YWCA 부속시설 정비
- 법인의 책무성 실현을 위한 법인 재구조화

② 단기 목표

- 1차년도(2019년): 회원YWCA와 '2019 YWCA 부속시설 운영기준(안)' 합의
  - 특별조사를 통해 부속시설 정비 및 법인 재구조화 필요성 인식 확산
  - 부속시설 관련 법인 재구조화 방안 마련
  - YWCA 부속시설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2차년도(2020년):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YWCA 부속시설 운영 정책(안)' 채택 연합회 법인구조 정비 및 회원YWCA 부속시설 정비 실행

③ 주최 : (사)한국YWCA연합회 · (사)한국YWCA연합회후원회 · YWCA복지사업단

④ 대상: 전국 53개 지역 회원YWCA 및 산하 부속시설 (위탁사업 포함)

3) 특별조사 결과

① YWCA 부속시설 운영실태 분석

- 회원 YWCA 본부 평가
- YWCA 부속시설 평가

② YWCA 부속시설 신운영정책 및 운영관련 중점과제 도출

- YWCA의 부속시설 운영목적 재정립
- 회원YWCA 본부의 부속시설 관리역량과 책무성 제고
- 부속시설 사업과 경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향상
- 인적자원관리의 공정성 제고 및 직원 역량강화

③ YWCA 중장기 계획(안) 도출

- 부속시설 구조조정 및 사업의 재구조화를 통한 발전방안 제시

④ YWCA 부속시설 운영정책(안) 제시

- 부속시설 운영체계, 운영안 마련
- 연합회와 부속시설의 권한과 책임
- 인사관리 (채용, 배치, 교육, 평가, 승진, 복리후생, 과업(직무분석), 성과관리)
- 리스크 관리 (준법 및 위험 예방 방안)
- 운영시스템 구축 (인재경영, 재무/회계, 사업 운영, 자원개발, 서비스 품질경경영, 부속시설 통합 모범안, 리스크 관리방안)

3. YWCA 부속시설 중장기 계획 (2019-2023) 및 YWCA 부속시설 新 운영정책 수립

1) YWCA 부속시설 중장기 계획 (2019-2023)

YWCA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의 건설			
목표	YWCA 부속시설 新운영정책의 마련 및 법인 재구조화를 통한 부속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책무성 제고			
전략	1. YWCA의 부속시설 운영목적 재정립	2. 회원YWCA 본부의 부속시설 관리 역량과 책무성 제고	3. 부속시설 사업과 경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향상	4. 인적자원관리의 공정성 제고 및 직원 역량 강화
중점 과제	1-1. 시설의 설치목적에 근거한 YWCA 부속시설 운영원칙 재수립	2-1. YWCA 부속시설 新운영정책 마련 및 공표	3-1. 정체성과 전문성에 근거한 부속시설 사업의 재정비	4-1. 공정하고 독립적인 인적자원관리 체계와 제도 마련
	1-2. 시설의 설치목적에 근거한 비전과 미션 정비	2-2. 회원WCA 본부의 부속시설 점검 및 평가체계 구축	3-2. 부속시설 사업성과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구축·강화	4-2.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통한 직원 만족도·헌신도 제고
	1-3. 부속시설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시설장 교육 추진	2-3. 회원YWCA 본부의 부속시설 지도·감독 역량 강화	3-3. 행정과 재정 관리의 투명성, 공정성 및 효율성 향상	4-3. 직원(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확대

2) YWCA 부속시설 新(신)운영 정책의 도입

한국YWCA는 '생명의 바람, 지역을 살리는 여성'이 되기 위해, 부속시설을

통해 지역의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돌보며 YWCA정체성을 실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사회복지운동의 전문화와 지역사회로의 확장은 YWCA 운동의 중요한 정책이고 전략이었다. 그러나 부속시설이 위탁시설 운영 형태로 전환되어 민간 중심이 아닌 정부 주도의 관리 형태로 확대되면서,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로 위치 지어지고 위탁시설의 성과가 운동의 결과물로 이어지지 않고 국가 중심의 관리 체계로 편입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 과정에서 본부의 핵심사업과 지도력이 부속시설로 이관되는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3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우리 스스로 부속시설의 운영평가를 한 결과 지역운동의 중심이 회원YWCA 본부가 아닌 시설 중심으로 전환되었고, 이는 본부의 운동성 약화라는 결과와 직결되어, 결과적으로 YWCA 목적과 정체성을 지키는데 오히려 큰 위험요소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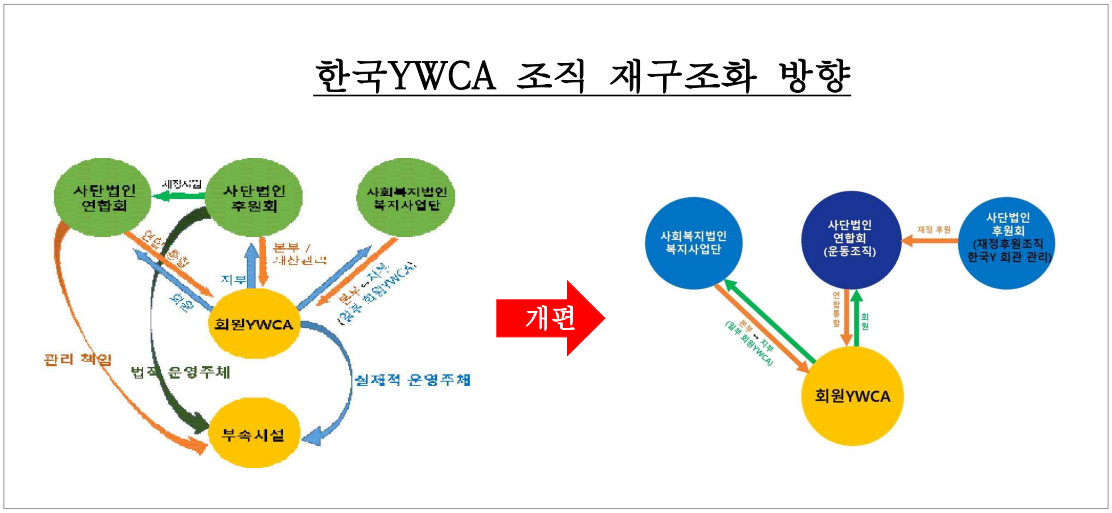
그러나 지금의 위기는 우리의 본질을 찾고 미래를 향한 우리의 역할과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금의 우리는 'YWCA 정체성을 실현하는 거점(부속시설) 전략'의 전면 수정을 필요로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YWCA 부속시설 新(신)운영정책을 수립하면서, 부속시설에 대한 YWCA정체성 실현 및 내재화 전략을 전면 수정하였다.

新(신)운영정책의 기본은 YWCA정체성에 근거한 <운동>의 중심이 회원YWCA(본부)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부속시설은 각 시설의 설치목적에 근거한 <전문운동>을 전개해야한다. 그리고 부속시설을 운영하는 주체로서 법인 또는 회원YWCA(본부)는 각 시설이 시설의 고유목적에 근거한 전문운동을 전개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해야한다.

3) YWCA 조직 재구조화

YWCA 창립 100년 이후의 건강한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YWCA 세 법인과 회원YWCA가 Y정체성과 목적에 맞게, 기독여성시민운동체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구조로 재정비함으로써, 지방분권화 시대에 회원YWCA의 자치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지역사회에서 책임 있는 운동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하였다.



① 의사결정구조의 책무성 강화

- 의사결정구조의 일원화 (법인이사회와 실행위원회 이중구조 해소)
- 법인 이사 인원 조정(등기이사)
- 실정법상 자격을 가진 구성원에 의한 의사결정구조 확립

② 청년대표성, 회원대표성 확대

- 총회, 이사회 청년할당제 도입
- 35세 이하 청년 부회장 제도 도입
- 총회 연합회:회원YWCA 대표 비율 조정

③ 의결기구와 실행기구의 역할 및 책임성 강화

- 법인이사회의 역할 명확화
- 의결사항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제도 보완

4) 회원YWCA 조직 재구조화

회원YWCA도 지역운동성 강화를 위해, 목적사업을 정비하고 있다. YWCA가 지향하는 가치중심의 비영리 조직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미션을 위해 실제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를 점검하고 있다.

이러한 회원YWCA는 소속 회원YWCA의 미션을 재점검하고, 그 미션을 명확히 한 후, 그 미션을 지키기 위한 전략과 목적사업의 정비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사업을 뚜렷이 한다는 것의 의미는 운동체로서 회원YWCA가 시민들에게 어떤 단체로 받아들여지느냐가 조직의 사활과도 맞닿아 있기에 미션을 실행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해진 목적사업에 따라 지역법인을 신청할 주무관청도 설정한 후 회원YWCA는 운동체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을 재정비하는 등의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다.

Ⅳ. 100년 이후의 YWCA 돌봄운동으로서의 사회서비스

1. 정부의 규제 강화(법인의 책무성 강화)가 YWCA의 사회서비스에 미칠 영향

서구에서는 공공에서 사회서비스 공급을 담당해오다가 복지다원화의 흐름에 따라 민간이 공급하도록 허용했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이 공공의 역할 및 책임 부재를 대신해 오다가 정부에서 점차 민간수행사업에 대한 소요예산을 부담함으로써 책임성을 점차 확대해왔다. 아울러 민간에서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더라도 이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사회복지법인에 의한 운영 및 통제를 활용하여, 운영과정을 개인의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이에 대한 내부적 통제가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에 의한 사업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사회복지법인이 의도한 바대로 작동된다면 사회서비스 공급의 자의성이나 질적 저하를 막을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사회복지법인에 의한 운영 및 통제를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법인·시설 재무회계 규칙 등의 개정을 통하여 엄격한 운영을 위한 변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시설을 위탁한 사회복지법인의 책임성을 높이는 정책들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진다.

첫째, 시설종사자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한 법인을 통해 직접 고용되어 위탁법인이 변경되어도 고용에 대한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시설장의 경우 법인 이사장에 직접 고용되어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는 등의 문제가 해결 수 있다.

셋째, 시설과 법인 운영정보의 공개로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측면에서의 단점도 존재한다.

첫째, 한국YWCA 등과 같이 사회복지시설을 많이 위탁받은 큰 법인의 경우 법인 산하 고용직원이 수천 명이 되어 인력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

둘째, 위탁법인이 인사권을 가지고 시설 운영에 개입함으로 시설들은 독립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하기 어려워지는 등 법인의 전횡이 심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셋째, 법인 위탁시설 비리 혹은 법령위반 사실이 있어 징계를 받을 시 이러한 징계가 법인 단위로 진행되므로 시설 재위탁의 문제 등 법인 운

영과 다른 위탁시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넷째,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의 투명한 운영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정부의 정책은 정보의 공개와 감시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행정업무의 양적 확대가 예상되며 이는 단체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행정업무 미숙 시 부정한 단체로 낙인찍히고, 행정 및 관리업무 투입시간 확대로 법인 고유의 활동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보건복지부 등이 당초의 계획대로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면, YWCA도 노무, 세무, 법무와 관련한 종합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YWCA가 사회적 약자를 돌보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 사회서비스의 사업으로 제도화되기도 하였고, 지역사회의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정부의 위탁운영사업에 지역사회의 신뢰할 만한 파트너로서 참여하는 것을 통해 YWCA의 부속시설은 확장되어 왔다. 그러나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 감소되어지는 어린이집과 같은 사회서비스 영역이 있고,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확대되어야 할 노인돌봄 영역과 같은 시대적 변화와 필요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YWCA의 사회서비스 관련 지향을 선택해야 할 시점에 놓여있다.

2. 100년 이후 YWCA 돌봄운동으로서의 사회서비스

YWCA는 돌봄운동으로서의 사회서비스를 왜 지속해야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지방복지행정을 책임성 있게 수행하는 시설운영주체로서 자리매김할 것인가? 시설운영주체를 넘어서 지역복지의 주체로서 지방복지행정의 민간 파트너로서 각 시설의 기능과 역할을 벗어난 지역사회 욕구를 발견하고 새롭게 터져 나오는 복지수요에 대한 대응하는 시민운동 단체로서 자리매김할 것인가?

YWCA가 지역의 여성들을 위해 해왔던 다양한 수고와 노력들은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의 제도화로 결실을 맺었고, 지역에서 시작된 EM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환경을 지키는 YWCA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또한 전지구적인 이슈인 탈핵을 연합회가 중점운동으로 선정하여 전 지역에서 함께 활동함으로써 커다란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등 YWCA는 엄청난 저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제도화되는 등의 결실을 이룬 이후 시의적절한 사회적 운동 의제의 개발을 위해서는 힘을 쓸 여력이 없어 손을 못 대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현실이다. 기존에 제도화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급급하여 지역여

성운동단체로서의 운동성을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YWCA의 운동이 지속가능할 수 없다는 현실 앞에서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곽지영, 2022).

조문영, 이승철(2018)은 시민운동의 활동들이 사회적 경제 및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제도화되면, 활동가와 지역사회조직들이 사회문제에 대해 구조적인 문제제기를 하기보다, 본인들의 윤리적 성과를 수치화하여 정부에 입증해야 하는 압박을 느끼는 처지에 놓이기 쉬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병권(2023)은 노동운동이 제도화된 민관협력 노동센터의 예를 통해, 제도화 이후 겪는 제도화에도 불구하고 운동성을 유지하고 있는 지점들을 입체적으로 조명하려고 시도하면서, 사회운동조직의 제도화에 대한 일면적인 옹호나 거부가 아니라 능동적인 대안 수립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운동성을 견지하려 노력해온 민관협력 노동센터들은 지방정부를 상대로 전략적으로 저항하며 제도 개선을 추동하거나, 센터가 위치해 있는 지역 내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단체들과 네트워킹을 도모함으로써 저항의 토대를 조성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드러내면서, 제도화된 운동은 제도 바깥에 존재하는 운동과 함께 활동할 때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100주년을 맞이한 YWCA는 오래된 시민운동조직으로서 제도화된 조직과 다수의 회원 등의 외부적 위용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조직의 특성 때문에 민감하고 신속하게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지 못하게 되고 문제의식이 둔해진다면, 100주년 이후 YWCA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해 낼 수 없다. 이제는 돌봄운동으로서의 사회서비스를 제도화된 사회서비스의 운영주체로서 머무를 것인지, 기존의 사회서비스 제도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초기 YWCA 선배들이 가졌던 선구적인 역할들과 운동성을 회복할 것인지 선택을 하고 책임을 감해야 한다. 역사 속에서 YWCA는 늘 기존 질서를 깨고 새로운 질서를 향해 나아갔다. 급속히 변화되는 세상을 향해 불편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질문을 제기하면서 새롭게 변화되는 YWCA를 간절히 소망한다.

참고문헌

곽지영(2022). 지역청년운동으로서의 YWCA 지역여성운동. 한국YWCA 창립 100주년 기념 YWCA 역사포럼: 한국YWCA 기독여성운동의 기억과 전망,한국YWCA연합회.

외(2018). YWCA지역여성운동연구. 연구보고서 2018-7.

손병덕 외(2019). YWCA 부속시설 중장기 계획 및 YWCA 부속시설 新 운영정책 연구.

이병권(2023). 사회운동조직은 제도화 이후 어떻게 저항하는가?: 민관협력 노동센터의 하부정치. 산업노동연구, 29(2), 179-223.

조문영, 이승철(2017). '사회'의 위기와 '사회적인 것'의 범람. 경제와사회, 113, 100-146.

최만자(2017). 페미니즘과 YWCA 운동. 여세, 5호.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60101&PAGE=1&topTitle=

https://www.socialservice.or.kr:444/

[YWCA 돌봄운동: 2000년대 이후 연구 참고자료 목록]

연번	제목	출처
1	[파일] 돌봄과살림 상황	대구YWCA
2	[자료집] 시민포럼 자료집	대구YWCA
3	[파일] 부산YWCA_돌봄과살림 소개(2016)	부산YWCA
4	[파일] 돌봄과살림협동조합 발자취	부천YWCA
5	[영상] 돌봄과살림협동조합_인터뷰(김숙환이사장) [영상] 경제교육소개,필요성,장점	부천YWCA
6	[파일] 가사도우미 연혁(20071016)	서울YWCA
7	[영상] 돌봄 50주년 영상 및 스토리	서울YWCA
8	[자료집] 돌봄50주년 포럼(원고)	서울YWCA
9	[자료집] 돌봄과살림협동조합_창립총회	성남YWCA
10	[파일] 사협인가를 위한 세부사업계획서 요약본	성남YWCA
11	[파일] 수원YWCA 50년사(돌봄운동 영역 정리)20230619	수원YWCA
12	[파일] 수원YWCA 아이러브맘카페_사업계획	수원YWCA
13	[파일] 수원YWCA_아이맘카페 목적 및 필요성	수원YWCA
14	[파일] 수원YWCA_아이맘카페 어린이집 이용안내(2023)	수원YWCA
15	[파일] 안양YWCA 돌봄과살림 연혁	안양YWCA
16	[파일] 안양YWCA 안양시 여성친화도시 3주년 기념포럼_취지 및 일정	안양YWCA
17	[파일] 돌봄과 살림 브랜드 매뉴얼	연합회
18	[파일] 돌봄과 살림에 관한 정책 협의(20100317)	연합회
19	[파일] 2015 가사돌보미 서비스 실태 조사_이은영	연합회
20	[파일] YWCA_돌봄서비스 정책 방향에 관한 건(20200818)	연합회
21	[파일] 한국YWCA 돌봄과 살림 운영방향 모색_ 위원회(20211213)	연합회
22	[자료집] 2011년도 돌봄과 살림 직업훈련 담당 실무자 워크숍	연합회
23	[자료집] 2012년도 YWCA 돌봄과 살림 직업훈련실무자 워크숍	연합회
24	[자료집] 2013 여성인력개발센터 20주년 심포지엄	연합회
25	[자료집] 2014 YWCA 돌봄임원 워크숍 - 한국YWCA 직업훈련과 돌봄	연합회
26	[자료집] 2014 YWCA 전국 돌봄노동 담당 활동가 교육	연합회
27	[보도자료] 제1회 협동조합주간 기념 '돌봄협동조합 활성화 정책 토론회' 개최	연합회
28	[보도자료] 2014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 캠페인	연합회

29	[보도자료] 2015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 캠페인	연합회
30	[보고서] 2016 다래교실 평가연구	연합회
31	[보고서] YWCA 돌봄 사업(요약본)	연합회
32	[보고서] YWCA 돌봄사업(110408)_한국노동연구원	연합회
33	[보고서] 2020 YWCA 돌봄과살림 담당 실무자 모임	연합회
34	[자료집] 2020 YWCA 돌봄과살림 담당 실무자 모임	연합회
35	[자료집] 은학의집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연합회
36	[자료집] 돌봄정의포럼 1~5차	연합회
37	[월간『한국YWCA』2020년 11·12월호] 가사근로자보호법 입법을 앞두고_표대중	연합회
38	[정론지]『여·세』(여성이 살리는 세상) 2014년 2호	연합회

[한국YWCA 창립 100주년 기념 화보집 - 연혁]

한국사, 여성기독운동사적 중요 연혁		한국YWCA연합회 연혁	
1922-05-20	조선여자청년회 조직, 회장 최활란	1922-04-20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연합회 창립
1922-09	남감리회 소속 여전도사 300여명 집단 임금인상요구	1922-04	WSCF(세계기독교학생연맹) 총회에 김활란, 김필례 참석
1923-04	형평사운동 (백정신분해방운동) 시작	1923-04	제1회 총회에서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 연합회 기성회를 조선여자기독청년회 연합회로 명칭 변경
1923-07-03	광화문 인근 4개 고무공장 여성노동자 파업, 한국 최초의 여성노동자만의 파업		
1923-08-01	조선물산장려회 창립		
1923-11	한국기독교, 공창폐지위원회 구성		
1924-04	경성YWCA가 여자전용도서관을 태화여자관 태화정에 개관	1924-02-16	경성YWCA 여자노동야학원 설치
1924-05-10	한국 최조 여성사회주의단체 조선여성동우회 조직	1924-04	경성YYWCA 여학생 기숙사 설립
1924-08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연합회 조직	1924-08-21	세계YWCA에 개척회원국으로 가입, 학생YWCA가 WSCF (세계기독교학생연맹) 회원으로 가맹
1926-12	YWCA와 사회주의 여성 연합으로 직업여성의 친선도모를 위한 망월구락부 조직		
1927-02-15	민족협동전선을 기치로 신간회 창립	1927-08-24	제1회 남녀기독학생하령회 (8.24~29, 우이동)
1927-05-27	근우회 창립		
1927-11-03	광주학생독립운동		
		1928-08-23	제2회 남녀기독학생하령회 (8.23~30, 우이동)
		1928	연합회 헌장개정 (회원자격을 복음주의 교회입교인에서 기독교회 입교인으로)
		1930-08-23	제4회 남녀기독학생하령회 (8.23~27, 금강산)
		1930-06	세계YWCA에 정회원국으로 승격가맹

1931-06-14	감리회 여선교사 14인을 대상으로 한국 최초 여자 목사 안수	1931-08-22	제5회 남녀기독학생하령회 (8.22~28, 도선사)
		1931-10	수원 샘골에 농촌사업시작, 최용신을 교사로 파견
		1934-12	농촌부녀지도자 훈련소 개소
		1935-01	최용신 별세
		1938-07-15	세계YWCA에서 탈퇴 일본YWCA 동맹 조선위원회로 개편
1939-06-09	조선기독교여자절제회연합회 일본교풍회에 흡수, 일본기독교부인교풍회 조선분회로 명칭 변경 결의		
		1940-11	경성YWCA 기청 양재여숙 개소
		1941~1945	조선YWCA 활동 중단
1945-07-19	한국기독교 각 교단 해산 및 일본기독교에 완전 편입, 일본기독교 조선교단 창립		
1945-08-15	해방, 미군정청 설치		
1945-08-18	대한여자국민당 창당		
		1946-03	조선YWCA연합회 재건 시작 (신의경,김성실,홍은경 중심)
		1947-09	YWCA회보 창간
		1947-07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WSCF(세계기독청년연맹) 총회에 장영숙, 강서라 참석
		1947-10	항주 세계YWCA 협의회에서 정회원국으로 가입, 김활란 세계YWCA 실행위원에 당선
		1947-11-17	박에스더 한국YWCA 고문총무로 파견 취임
1948-04-03	제주4.3사건 발발		
1948-08-15	대한민국 정부 수립	1948-07-05	명동 회관으로 이사
1948-10-19	여순사건 발발	1948-07-06	사단법인 대한YWCA연합회 후원회 설립
		1948-08	동래여자실수학교 위임 받아 농예원 사업시작

1950-06-25	한국전쟁 발발	1950-07	최예순 회장 납치
		1951-02-02	부산 필승각에 연합회 임시회관 마련하고 활동
		1952-06	동래농예원 연합회 직영사업으로 시작
		1952-06-14	광주YWCA 호남여숙 개설
		1952-07-01	광주YWCA 성빈여사 설립
		1952-09-01	서울YWCA 유치원 시작
		1952-10	전쟁 중 한국 실정 시찰을 위해 세계YWCA 총무 로버츠 내한
1953-07-27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 일명 휴전협정 체결	1953-07-23	학생YWCA가 대학생YWCA와 Y-틴부로 완전분리, YM·YW 학생하령회 (7.23~29),
		1953-07-30	1회 전국 Hi-Y, Y-틴 하령회,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1953-09-28	서울로 연합회 사무실 이사
		1954-12	YWCA 미망인 사업관 준공
		1954	지방YWCA 사업관 건립위해 에밀리 루이드 내한
		1955-05	대한YWCA연합회 외원단체로 보사부에 등록
		1956-08	세계 대학생 기독교연맹총회서 김현자 간사 중공 대표 참석문제로 퇴장
1959-12-26	여성단체연합기구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창립	1959-04-01	혼인신고 강조운동 전개
1960-04-19	4.19혁명	1960-01	YWCA회보를 월간 「한국YWCA」로 명칭 변경, 제1호 발간
		1960-07-19	전국여성계몽대회 개최 -국산품애용 및 축첩자, 부정 축재자 축출 강연회와 가두 시위 (전국여성단체 임시연합회)
1961-05-16	5.16군사정변	1961-06	서울YWCA 공장 여직공을 위한 교양프로그램 시작
		1961-09-01	YWCA 소녀의 집 개관 (후암동)

		1962-04-02	서울YWCA, 수원 샘골과 자매결연
1963-10-10	서울가정법원 개원	1962-12-01	광주YWCA 계명여사 개소
		1965-11-12	유일한 박사가 경기도 소사 대지 39,810평 기증
		1966-06-04	제1회 청년대회 '오늘의 청년 ' 개최
		1966-08-03	미국YWCA 이사 및 간사 11명 내한: 미국YWCA가 조직한 동아세아세미나 개최
		1967-06-05	대한YWCA연합회 회관 신축 기공식
1968-11-21	주민등록번호 제도 시행	1968-03-18	YWCA 버들캠프장 기공식 (경기도 소사, 유일한 박사 기증 대지)
		1968-06-22	대한YWCA연합회회관 정초식
		1968-09-10	대한YWCA연합회회관 봉헌식
		1968-10-05	대학생 YWCA 독자성 유지에 관한 성명서 발표
		1969-07-03	YWCA연합회회관 5층 증축
		1969-07-21	독일정부서 소사캠프장(버들캠프장) 숙소 건축원조
1970-11-13	전태일 분신	1970-04-30	대한YWCA연합회회관 6층 증축
		1970-07-11	YWCA 버들캠프장 봉헌식
1971-08-10	광주 대단지 사건 발생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그에 따른 농업의 해체와 실업 문제 등 도시 빈민 문제의 본질을 드러낸 사건)	1971-03-23	월남YWCA 운동 위해 박에스터 고문 파견
		1971-08-08	가나 세계YWCA협의회 참석, 김현자 부회장 세계YWCA 실행위원에 당선
1972-07-04	7.4남북공동성명	1972-05-22	대학생YWCA 평화시장 야학 봉사활동 전개(3개월)
1972-12-27	유신헌법 공포		
		1973-04-17	가족법 개정 촉구 강연회

		1973-04-01	가정부 보호 캠페인의 달로 정하여 활동 전개
		1973-10-13	아시아지역 YWCA 성인교육 협의회 개최 (17개국 44명 참석)
1974-09-04	크리스챤아카데미여성지도자 협의모임 참가자 여성인간선언 발표, 여성운동을 문화개혁과 인간 해방운동으로 규정	1974-02-19	인천YWCA 수은공해공장 설립반대운동
		1974-03-29	성인교육협의회
		1974-04-08	대학YWCA 연희지역 야간학교 개강
		1974-10-09	서울YWCA 공장 여직공을 위한 야간 중등반 개설
		1974-11-05	전국YWCA 수감자와 그 가족을 위한 기도회
		1974-12-07	제1회 근로여성 생활수기 시상식
1975-05-10	동일방직에서 한국 최초 여성노조지부장으로 주길자 선출	1975-02-21	대학YWCA 청계천 판자촌 지역 실태조사
		1975-05-09	가족법개정 지도자훈련
		1975-06-11	가족법개정 추진서한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법사위원장에 발송
		1975-07-02	가족법개정 추진 위한 국회위원에게 회원편지보내기 운동 시작
		1975-10-24	제1차한·일YWCA협의회 개최
		1976-01-04	마산YWCA 근로여성특별사업 시작
		1976-01-12	계수기 철폐 및 안내원 근로조건 개선 위한 건의문 발송
		1976-03-08	마산YWCA 야간학교 개교
		1976-05-29	기능적 문맹퇴지 위한 사업 전개(유네스코와 세계YWCA 후원) / 기능적 문맹 퇴치를 위한 성인교육 세미나 (1차 5월, 2차 9월, 3차 11월)

		1976-06	광주·마산 계절탁아소 설치
		1976-11-05	여행원 처우 개선을 위한 재무부 국장 면담
		1976-12-31	한국YWCA 반백년사 출판
		1977-02	여은행원 지위 조사: 임금, 결혼각서, 책임자 자격고시, 직위 등
		1977-06-21	남영나일론 문제 해결: 사장, 남상수 회장 협의
		1977-06-28	서울YWCA 독산동 근로여성회관 봉헌
		1977-08	YWCA 가정부 교육교재 출판
		1977-09-08	한국YWCA 소비자 전국대회 : '소비자 운동은 인권운동이다'
		1977-05-09	제1회 팔도강산 바자회
		1978-02-10	여성직업 개발사업 위해 AID(Ac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와 조인식
		1978-06-26	동일방직 사태 해결 위한 섬유노조 조직국장 면담
		1978-08-01	원폭사진 전시회 : 원폭피해자 돕기 모금 일일찻집 및 전국 전시
		1978-10-17	전국 소비자보호지도자 훈련
		1978-11-04	NCC 동일방직 대책위원회 해고근로자 위한 모금 전달
1979-08-11	YH사건	1979-02-21	제1차 타일 국가기능 검정시험에 YWCA 훈련생 29명 합격
1979-10-16	부마민주항쟁	1979-07-27	해태제과 근로자를 위한 기업부와 면담
1979-10-26	10.26사태	1979-09-08	그리스 YWCA 세계대회에 한국YWCA 대표 11명 참석, 김영정 위원 세계Y 실행위원에 당선
1979-12-12	12.12군사반란	1979-09-15	대한생명 여성근로자 30세 정년 폐지 위한 건의
		1979-11-22	영세지역 놀이반 훈련 수료생, 하계동 어린이 놀이반 시작

		1980-05-09	박에스더 고문 송별회
1980-05-18	5.18광주민주화운동	1980-05-29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광주YWCA 조아라 회장, 이애신 총무 구속, 신용협동조합 박용준 직원 사망
		1980-10-25	광주YWCA 이애신 총무 집행유예 석방
		1980-10-30	광주YWCA 조아라 회장 형 면제 석방
		1982-03-27	세계YWCA의 날 책자 『지구를 보호하자』 발간
		1982-11-01	가족법 개정의 달 제정 행사
		1983-09-01	서울YWCA 청개구리 마당 개설
1983-04-21	한국여성개발원 설립	1984-04-02	18개 지방YWCA 무료직업안내사업 노동부로부터 허가
1984-07-18	가족법개정을 위한 여성연합회 결성, 회장 이태영	1984-08-30	가족법 개정을 위한 전국 서명의 날
		1984-09-12	가족법 개정 위한 공개 좌담회
		1985-05-01	미혼여성 25세 정년판결에 대해 건의문 발송
		1986-01-06	전국YWCA 시국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
1986-04-03	민주헌법쟁취여성추진위원회 발족		
1986-04-25	KBS-TV 시청료거부운동 여성단체연합 조직		
1986-07-19	부천경찰서 성고문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1986-09-16	고문근절 위한 세미나
		1986-11-01	가족법 개정과 고문금지를 위한 건의
1987-02-18	한국여성단체연합 발족	1987-01-22	고문근절을 촉구하는 건의문 발송
1987-06-10	6월 민주항쟁 시작		
		1987-06-01	전국YWCA 나라 위한 365일 철야기도회 시작
		1987-06-17	최루탄 사용 중지촉구 건의서, 여야 정치인과 정부

			에 보내는 호소문, Y회원에게 보내는 글, 학생에게 보내는 호소문 각각 발송
		1987-10-30	가족법 개정 운동을 위한 지도자 교육
1988-09-17	서울올림픽 개막		
		1988-09-19	북한YWCA 재건을 위한 기금 모금 시작
		1989-05-09	시국을 위한 기도회 및 폭력추방 캠페인
		1989-06-05	대한YWCA연합회 환경청장상 수상
		1989-10-13	일본 교과서 역사왜곡에 대한 간담회
		1989-11-14	가족법 개정 촉진 건의문 발송
		1989-12-26	전쟁놀이 장난감 제작 중지 호소문 발송
1990-11-16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발족		
		1990-05-22	바른 삶 실천대회
		1990-11-26	바람직한 결혼식과 결혼예복 발표회
1991-06-12	한국정신대문제대책위원회 조직 및 수요시위 시작	1991-03-21	바른 결혼문화 정착을 위한 실천대회
1991-09-18	남북한동시유엔가입		
1991-12-13	남북기본합의서 합의		
1991-12-31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1992-10-13	아시아 YWCA 환경회의 개최
		1992-11-26	기혼여성 고용촉진을 위한 토론회
		1993-02-26	1차 한.일 YWCA 청소년협의회
		1994-04-21	종량제 시범사업 민간평가단 발대식
		1994-07-20	바른 삶 실천 - 하나하나운동 시작
		1994-08-15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94 남북인간띠잇기대회
		1994-08-29	제1차 한민족여성대회, 연변

		1994-10-29	제1회 여성기능대회
		1995-05-04	제1회 전국대학생 여성포럼
		1995-07-07	세계YWCA 창립 100주년 기념 YWCA 세계대회, 유성희 부장 세계Y 실행위원에 당선, 서울
1996-12-12	OECD 가입	1996-02-05	제1회 국제자원활동 연합캠프
		1996-04-25	제2차 한민족여성대회, 뉴욕
		1996-07	북한 어린이에게 분유 보내기 모금운동 시작
		1996-11-28	부천YWCA 창립
		1996-12-03	제1회 소비자의 날, 대한YWCA연합회 소비자보호 부문 대통령상 수상
		1996-12-06	제1회 YWCA가 뽑은 좋은 TV프로그램상 시상식
		1996	제1기 사랑의 YWCA 국제봉사단 파견
1997-11-21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요청	1997-03-25	북한어린이에게 분유 보내기 1차 전달식 '어머니의 마음을 북한어린이에게'
		1997-11-24	경제살리기 외화 동전모으기 운동
1998-11-01	금강산관광 시작	1998-04-20	제1기 실업충격완화 및 창업준비 프로그램
		1998-05-06	제1차 사랑의 먹거리 나누기 (Food Bank) 운동
		1999-05	아시아-태평양 지역 8개국 성매매 경로 실태 파악 위크숍
		1999-07-16	카이로 YWCA세계대회, 박은경 실행위원 세계YWCA 부회장에 당선, 북한난민해결을 위한 결의안 채택
		1999-08-17	민족의 화해와 평화로 가는 여성 815인 선언 참가
2000-06-15	6.15남북공동선언	2000-05-16	노인복지관 은학의 집 개관
2000-09-22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 발족	2000-10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 활동 전개
		2000-11-21	남북여성교류 사업을 위한 평양실무회담 참석

		2000-12	북녘동포 겨울나기 사랑의 내복 보내기 운동 전개
2001-01-29	여성부 신설	2001-04-02	제1회 남녀고용평등 단체부문 대통령상 수상
2001-11-25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01-04-10	일본역사교과서 왜곡시정 및 채택 저지를 위한 1백만 명 서명운동
		2001-05-01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시정 및 채택저지를 위한 일본 방문
		2001-07-09	제1차 북한이탈주민돕기 상담원교육
		2001-09-20	전쟁중지와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여성평화 침묵시위
2002-06-13	미군 장갑차 여중생 압사 사고	2002-05-02	사회복지법인 대한YWCA연합회 복지사업단 설립
		2002-08-21	WSSD(리우+10) 글로벌 포럼 참가
		2002-10-25	YWCA 어린이 환경캠프
2003-02-28	대구지하철 화재 사고 발생	2003-03-19	반전 평화 여성행동 미국의 對이라크 전쟁 반대 집회 참가
		2003-07-23	제1차 청소년경제리더십캠프
		2003-08-14	평양 8.15 민족대회 참가
		2003-11-11	제1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
		2006-08-25	제1회 아시아 기독교 생명농업포럼 참가 : 신자유주의 경제 세계화에 대한 대안적인 생명농업과 그에 기반한 튼튼한 공동체 형성
2007-10-04	10.4남북공동선언	2007-02-06	한국YWCA80년사 출판기념회
		2007-06	아시아 빈곤 여성 영양제 보내기 운동
		2007-09-14	제1회역사NGO세계대회 참가
		2008-02-25	유엔여성지위위원회(CSW) 참가 : 양성평등과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재정계획
		2008-09-18	국제결혼 현지조사 : 몽골, 베트남, 중국 방문
		2008-11-06	결혼이민여성 직종개발 연구 보고회 및 취업 설명회
		2008-12-19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선도사업 선정, YWCA-보건복지부 협약식

		2009-03-05	결혼이민여성 인권 운동: 캄보디아 여성 구명 운동 선포식 참여
		2009-05-00	결혼이민여성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사업
		2009-06-23	제37회 YWCA전국대회에서 '대한YWCA연합회' 기관명을 '한국YWCA연합회'로 변경
		2009-07-23	YWCA 대학생 평화캠프
2010-03-26	천안함 침몰 사건	2010-06-05	YWCA 돌봄과 살림 비전축제
		2010-09-01	돌봄과 살림 사회 서비스 선도사업 평가대회
		2011-02-10	(사)한국YWCA연합회 정기총회, 한국YWCA연합회 사단법인화
		2011-03-15	일본 후쿠시마 지진 피해 돕기 모금 캠페인
		2011-03-31	YWCA 정의포럼(총6차)
		2011-08	저소득 다문화가정 출산 지원 사업
2012-03-05	한미FTA 발효	2012-03	YWCA 금융교육 교과서 서울시교육감 인정도서 출원
		2012-03-23	교회협력 북한어린이 돕기 운동
		2012-03-29	YWCA평화포럼(총5차)
		2012-08-18	한국YWCA 90주년 전국회원대회
		2012-09-20	YWCA-외환은행나눔재단 지구시민자원활동가 '도스뜨' 인도 파견
		2013-03-28	YWCA생명포럼(총5차)
		2013-05-15	가정의 달, 북한어린이와 함께 해요' 거리 캠페인
		2013-07-01	YWCA 탈핵실천에너지 운동 캠페인 및 사진전
		2013-07-17	김필례 선생 리더십 연구 발표회
		2013-08-19	길 위의 평화학교, 한국Y·퀸즈Y·연변 여성들이 함께하는 백두산 평화기행
		2013-10-02	밀양765kV 송전탑 막는 YWCA 희망터
		2013-11-07	나랏자이 굼본즈반다 세계 YWCA 사무총장과 청년들의

			대화 모임
2014-04-16	세월호사건	2014-01-14	북한어린이돕기 분유 전달 출항식
		2014-01-20	제1차 김필례 리더십캠프
		2014-03-11	제1차 YWCA 탈핵 불(火)의날 캠페인 시작 (매주 화요일 진행)
		2014-04-20	YWCA정론지 '여·세' 창간호 발간
		2014-05-30	YWCA 돌봄정의포럼
		2014-07-04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공심통심' 교육부장관상 수상
		2014-12-10	YWCA 100주년 기념영화 '한민족 그리고 조선족' 개봉
2015-12-28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타결	2015-02-03	고리1호기 폐쇄 촉구 기도회 및 폐쇄 촉구를 위한 YWCA 회원 10만 서명 부산시장에게 전달
		2015-05-23	2015 동일임금의 날 정책워크숍, 거리 캠페인
		2015-05-24	2015 국제여성평화걷기대회 (WCD : Women Cross DMZ)
		2015-10-11	제28회 YWCA 세계대회 참가, 원영회 실행위원 세계Y 공천위원에 당선, 한미미 실행위원 세계Y 실행위원과 부회장에 당선, 탈핵운동 한일 공동 결의문 채택
		2015-11-20	가사노동분야 국가직무능력 표준(NCS) 개발
2016-05-17	강남역 살인사건	2016-01-12	아시아 청소년 금융교육 국제캠프 및 씽크머니 10주년 아시아 청소년 금융교육 국제포럼
2016-11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민촛불집회	2016-02	국제적십자연맹 통해 1만불 북한수해지원
		2016-03-01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화 전국행동 참여
		2016-03-15	제100차 탈핵 불의날 캠페인
		2016-06	사회적 기업 육성 유공 국무총리표창 수상
		2016-07	한국YWCA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협의지위 획득

		2017-03	YWCA 1922 장학금 신설
		2017-04-20	한국YWCA연합회 창립95주년 기념예배·기념식
		2017-06-07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를 위한 YWCA 전국행동의 날
		2017-08-08	북한 어린이 분유 지원 모니터링 중국 방문
		2017-08-07	씽크머니 금융 체험 공간 PUB-FIN 오픈식
		2017-10-26	YWCA 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한라산편
		2017-11-30	한국YWCA 창립95주년 '희망나눔콘서트'
2018-01-29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폭력 사건 폭로	2018-02-01	검찰내 성폭력사건 진상규명 촉구 전국동시기자회견
2018-04-27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발표	2018-02-12	통일부 대북지원사업자로 YWCA 지정
2018-09-18	평양 남북정상회담	2018-03-08	3.8 여성의 날 미투운동 지지 YWCA 행진
2018-11-21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공식 파기	2018-03-20	제200차 탈핵 캠페인, 독일 '지구의벗 BUND' 초청 에너지전환 특강
		2018-05-23	동일 임금의 날 좌담회 '임금 차별은 불법이다 '
		2018-06-14	북한 어린이 돕기 분유지원 모니터링을 위한 중국 단둥 방문
		2018-08-23	대학·청년YWCA전국협의회 주관 '청년CPR캠프'
		2018-10-01	한민족 여성평화순례 -지리산편
		2018-10-16	2018 YANA(You Are Not Alone) 콘서트
2019-03-01	3.1절 100주년 범국민대회	2019-02-08	2.8 독립선언 100주년 기념식 참가(일본 도쿄 재일본 한국YMCA홀)
2019-12-08	코로나19 최초 발생	2019-03-01	3.1운동 100주년 범국민대회 참가
		2019-03-06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 기자회견 참여
		2019-03	청년창업과 혁신을 통한 지역활성화 도시재생 프로젝트 '로컬라이즈 군산:

			Y-LAB(YWCA 청년연구소)' 활동 시작
		2019-04-16	(사)한국YWCA연합회후원회-사회혁신기업 더함 명동 소셜 빌딩 구축 협약식
		2019-04-25	YWCA역사관 '이제' 개관
		2019-05-23	부속시설 특별조사 평가지표 설명회
		2019-06-22	핵폐기물 이제 그만, 10만인 행동
		2019-07-04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참가 : 한영수 회장 국민훈장 동백상 표창, 목포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가족부장관 표창수여
		2019-09-20	국제 평화운동가 '글로리아 스타이넘에게 묻다' 대화모임
		2019-09-30	YWCA 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태백산편 (탈북민, 조선족, 고려인 재미동포 참여)
		2019-10-17	(사)한국YWCA연합회후원회-사회혁신기업 더함 마스터리스 계약
		2019-11-17	제29회 YWCA 세계대회 참가 : 원영희 부회장 세계YWCA 공천위원에 당선, 한미미 실행위원 세계YWCA 부회장에 당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결의문 채택
2020-01-20	국내 첫 코로나 환자 발생	2020-03	애프터유 캠페인(온라인)
2020-05-19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양성평등의 날 제정	2020-05-06	동일임금의날 댄스챌린지 캠페인(온라인)
		2020-06-05	실행위원 온보딩 프로젝트(온라인)
		2020-07-09	YWCA 여성평화순례: 길 위의 평화포럼(총2차, 온라인)
		2020-08-07	지역법인 1호, 사단법인 대구YWCA 창립총회
		2020-09-01	YWCA 아카이브 (www.ywca-archive.or.kr) 오픈
		2020-09-12	전국동시다발 기후위기비상행동
		2020-09-16	2020 YWCA 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 "홀로걷는

			평화순례"
		2020-10-21	YWCA 탈핵기후생명운동을 위한 집담회(온라인)
		2020-11-19	(사)한국YWCA연합회 신회관 입주 감사예배(온라인)
2021-04-13	일본 정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2021-03-22	가사노동자법 연기 규탄 기자회견
2021-05-21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	2021-04-19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 방류 규탄 기자회견
		2021-06-04	2020년 국가기록관리 유공 정부 포상: 한국YWCA연합회 국무총리상 수상
		2021-07-00	일본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및 태평양을 지키기 위한 국제공동행동주간 캠페인
		2021-07-08	YWCA 100주년 준비단 출범식(온라인)
		2021-08-18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2021-09-02	양성평등 임금의 날(온라인)
		2021-10-01	YWCA 한민족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 "홀로걷는 평화순례"
		2021-11-01	YWCA 채플실 오픈
		2021-11-26	YWCA 역사관 '이제' 재개관
		2022-01-26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민법개정토론회
		2022-02-17	(사)한국YWCA연합회 총회: 청년부회장 선출, 지역대표, 청년대표 연합회 법인이사로 선출
		2022-04-20	한국YWCA연합회 100주년 기념식